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 °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설교 \_ 감히 하나님을 속이는 이단들
- ° 구원파에 대한 설교 \_ 구원파가 간과한 진리
- ° 통일교에 대한 설교 \_ 문선명 집단의 정체와 대처방안
- ° 신천지에 대한 설교 \_ 이단 신천지를 경계하라
- ° 정명석 집단에 대한 설교 \_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 °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한국교회에 배포한 CD에 대한 비판
- ° 이단사이비 관련 총회 주요 결의사항

# 이단경계주일을 위한 목회 자료집

# 발간사

이단과 사이비 집단이 출몰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고 어지럽게 하고 많은 폐해와 혼란을 주었던 일들은 어제 오늘의 현상만은 아니었습니다. 신구약시대에도 있었고, 초대교회 이후의 시대에도 많은 교회에 혼란의 소용돌이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교회를 깨우쳐 악의 집단을 물리치게 하였고, 교회는 스스로 복음의 신앙을 강화하여 굳게 서서 새로운 영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1990년도를 기점으로 이단과 사이비 집단들이 발생한 통계를 보면 한국교회와 본 교단이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발생한 50개의 이단과 사이비 집단들 중에 45개가 1990년 이후에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출몰하는 이단과 사이비 집단은 치밀하게 계획하여 한국교회와 본 교단에 아주 위협적이고 조직적으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본 교단은 악의 집단들이 파고드는 위협적인 접근과 침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일제히 일어나 이단과 사이비 집단을 경계해야 합니다. 본 교단은 그 방편으로 이단경계주일을 정하고, 교회와 교인들에게 경각심과 그들을 막아 낼 대책을 세우고, 영적인 무장을 통해서 교인들의 신앙을 정예화하기로 했습니다.

그 막중한 사명을 인식하고 본 교단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와 전문 위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이단경계주일을 지키기 위한 「이단경계주일을 위한 목회 자료집」과 준비물을 제작하였습니다.

한국교회와 본 교단의 모든 교회들이 이단경계주일에 본 자료집을 잘 활

용하여 이단과 사이비 집단을 완전히 배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일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들과 전문위원, 이단사이비문제상담소 소장 구춘서 교수와 유수정 차장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단경계주일을 위한 목회 자료집」을 활용하여 이단과 사이비 집단을 축출하는 데 기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6월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위원장  
유한귀 목사

현재 한국교회를 괴롭히는 이단들의 발호는 교회가 인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이들 이단들은 한국교회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많은 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단들에 미혹되어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에 적대행동을 하는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이단들의 활동 때문에 젊은 세대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고, 이 부정적인 인식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특히 젊은 세대를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이들 이단에 대해 대처하고 예방하는데 한계를 보여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처럼 이단들은 우리 교회와 목회자들을 여러 가지로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총회는 제95차 총회 결의를 통해 매년 8월 첫째 주를 이단경계주일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단이 이단경계주일을 지키기로 한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지탄을 불러일으키는 이단들을 우리 건전한 교회와 분리시켜야 합니다. 이단들이 각종 문화행사, 스포츠행사, 대형집회, 해외 포교활동, 또한 구호활동을 활발하게 펼친다 해도 이들은 우리 교회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인들이 먼저 이들 이단의 정체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주요 교리와 사상이 무엇이고, 그들이 어떻게 우리 교인들을 유혹하며, 그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교인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이들에 대해 경계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가령 문경에서 발생한 엽기적인 십자가에서의 자살 사건에 대한 일반 매스미디어의 보도는 이 자살한 사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한 씨를 그냥 전직 목사로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느 교단 소속인지, 그가 어느 신학교 출신인지 밝히지 않고 그냥 전직 목사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오랫동안 한국의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정죄한 이재록 씨의 만민중앙교회 핵심 교역자였다는 사실,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 마리아가 죽은 입다의 딸이 환생한 것이고, 우리도 죽으면 환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하게 주장했던 사실은 보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독자들은 이 문경의 십자가 자살사건은 전직 목사가 연관되어 이런 몰상식하고 엽기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시민들 특히 젊은 세대는 한국교회 전체가 마치 이런 광신도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이런 사실을 앞장서서 알릴 수도 없는 일어서 부정적인 이미지는 고스란히 우리 교회가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예이지만 이런 사실들이 하나하나 쌓여 급속도로 한국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유포되고 전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경계주일을 위한 목회 자료집」은 금년부터 시작되는 이단경계주일을 지키기 위한 자료집입니다. 본 서에는 이단경계에 도움이 되는 성경구절들, 그리고 이단경계주일 예배 시 사용할 수 있는 교독문과 공동기도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현재 대표 이단들을 경계하는 설교도 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총회가 결의한 주요한 이단들에 대한 간단한 결정이 실려 있습니다. 따라서 목회자들이 서재에 두고 간단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이 자료집에는 우리 한국교회를 괴롭히는 주요 이단 다섯 곳을 선택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이단경계주일을 위한 목회 자료집」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신 이단사이비대책위 연구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최태영 목사가 구원파에 대해, 탁지일 목사가 통일교에 대해, 허호익 목사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최삼경 목사가 신천지 집단에 대해, 그리고 본인

이 정명석 집단을 담당하여 집필하였습니다. 이 자료집과 더불어 이들 주요 이단들의 실상을 보여 주는 동영상 자료와 이단경계주일에 사용할 수 있는 포스터를 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집을 만들도록 해 주신 총회와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유한귀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 그리고 이 책을 출판하기 위해 수고해 주신 한국장로교출판사 사장 채형욱 목사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단경계주일을 위한 목회 자료집」이 잘 활용되어 우리 교회가 이단들의 미혹과 공격을 막아 내고 튼실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총회 이단사이비문제상담소장  
구 춘 서 교수

# 차례

발간사 \_ 유한귀 3

머리말 \_ 구춘서 5

총회 이단경계주일을 준비 \_ 구춘서 10

이단 경계를 위한 성경구절들 21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설교 감히 하나님을 속이는 이단들 \_ 허호익 25

구원파에 대한 설교 구원파가 간과한 진리 \_ 최태영 37

통일교에 대한 설교 문선명 집단의 정체와 대처방안 \_ 탁지일 49

신천지에 대한 설교 이단 신천지를 경계하라 \_ 최삼경 59

정명석 집단에 대한 설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_ 구춘서 71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배포한 CD 녹취록의 이단성 83

이단사이비 관련 총회 주요 결의사항 86

# 총회 이단경계주일 준비

구춘서(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상담소장)

## 1. 들어가는 말

우리 총회는 제94회기 결의에서 8월 첫째 주일을 이단경계주일로 지키기로 결의했다. 그동안 한기총에서 결의한 이단경계주일이 있었으나 현재 한기총은 이단 해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추진할 동력을 상당부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교단이 이단경계주일을 지키기로 총회에서 결의한 것은 한국교회 전체에 던지는 의미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제 통계숫자를 제시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이단들의 활동이 왕성한 이때 한국교회의 주요 교단인 우리 총회가 이단경계주일을 지키기로 결의한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총회의 결의를 통해 우리 교단이 한국교회 전체를 이끌어 가는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자리매김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결의를 가능하도록 안팎의 어려움을 이겨 내고 많은 활동을 한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하 이대위)의 활동에 대해 우리는 감사하며 이단경계주일을 성공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단경계주일을 지키는 것은 일과성인 활동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이단들의 활동이 집요하고 그들에 의한 폐해는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교회에서 이단들에 미혹되어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교인들 때문에 상담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일선 목회자들은 이단들에 미혹되어 있는 교인들을 상담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느라 골

머리를 앓고 있다. 또한 이렇게 이단들에 미혹된 성도들이 도전적으로 던지는 질문에 대응하느라 가뜩이나 바쁜 목회 가운데 더욱더 고통을 호소하는 형편이다. 그렇다 보니 일단 성도들을 이단에 넘어가거나 미혹되기 전에 미리 교육시켜 이들이 이단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하는 것이 목회 효율성 측면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이단은 미리 일상에서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길임을 목회현장에서 실천적으로 검증되고 있다. 따라서 이단경계주일은 한 주일의 활동이 아니라 일 년 내내 목회현장의 주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단경계주일을 지키면서 부차적으로 기대되는 효과도 많다. 우선 교인들에게 교육목회의 중요성을 다시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이단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다음세대에 대한,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단경계주일을 위한 예전이나 특별한 예배를 기획 실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교회 전체에 불신의 풍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전체 국민들에게 건전한 교단의 교회와 목회자들과 사이비 내지는 이단들의 실체를 알리는 효과가 있어 교회 이미지 개선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교인들에게 이단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건전한 신앙생활로 인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단경계주일을 지키면서 목회의 활성화와 교인들의 친교와 섬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이단경계주일을 지킴으로 기대되는 효과가 큰 만큼 성공적으로 이단경계주일을 지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단경계주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 것 또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단들에게 교인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이단들의 공세를 차단하는 예방교육은 물론 홍보, 예배, 상담 등 다차원의 목회활동이 총동원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선 목회자들은 총회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이단사이비상담소에 자신들의 교회 홈페이지를 연동시키도록 하는 홈페이지 개조작업이 필요하고, 수시로 이 자료집을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보에 이단에 대해 경각심을 주는 안내문을 매주 게재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단경계주일을 지키기 위한 준비 작업은 다방면으로 필요하다.

이 짧은 글은 우리 교단 소속 목회자들이 이단경계주일을 지키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해 보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이단경계주일은 단순히 한 번 설교만 하고 지나가기에는 현재 한국교회의 현실이 너무나 엄중하다. 따라서 목회자들은 사전에 홍보, 교육, 계획, 예전, 설교, 사후 관리까지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해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이단경계주일을 지키면서 교인들을 훈련하고 교육할 뿐 아니라 목회자들 자신들이 변화되고 교육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목회자들이 먼저 이단에 대해 철저하게 알고, 이들을 대적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자신이 배우고 익힌 것을 교인들에게 전달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총회 사이버이단대책위원회에서 발행한 「우리 주변의 이단들」, 그리고 「신천지 집단에 대한 긴급 경계령」과 같은 소책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기를 부탁드린다.

## 2. 이단경계주일을 지키기 위한 준비작업

이단경계주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교회력의 주일을 지키는 것에 준하는 준비와 기도가 필요하다. 대강절이나 성탄절,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 등 우리 교회가 지키는 교회력의 기간에 준하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따라서 총회 이대위에서도 이 경계주일을 위해 「이단경계주일을 위한 목회자료집」을 발간하여 목회자들에게 배부하여 목회자들이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다. 또한 교단지 「한국기독교공보」를 통해 이단경계주일을 지키기 위한 광고와 특집 기사를 준비하여 홍보의 수단으로 삼고, 총회장의 목회서신, 주요 목회자들의 이단에 대한 경계에 대한 기고를 통해 이단에 대한 집중적인 경계태세에 돌입한다는 것을 알려야 할 것이다. 목회자들은 경계주일을

이 다가오면서 다음과 같이 교회 내에 홍보와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각 교회에서 목회현장마다 다를 수 있으나 예배위원회, 교육위원회, 행사위원회, 그리고 음악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이단경계주일을 지키기 위한 사전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배 순서에 참여할 참여자에게 사전에 기도로 준비하게 할 것이며, 교회학교가 어떻게 준비하고 참여할 것인지 사전에 계획을 세워 진행하도록 한다. 또한 음악위원회는 이단에 대처해야 할 찬양과 교회 부흥과 관계되는 찬양을 준비토록 할 것이다. 행사위원회에서는 외부 강사를 초청하는 경우 차질 없이 준비하여 모든 순서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1) 교회 내에서의 이단경계주일 홍보

이단경계주일이 다가오기 전 7월 중순부터 교회 내에 집중적으로 이단을 경계하자는 배너(대형 걸개)나 포스터, 그리고 사진을 게재하여 이단경계주일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되는 사진은 가능하면 총회에서 제공하는 것을 인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자칫 초상권 침해나 이단들의 법적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또한 방송국에서 방영한 자료를 상영하여 이단에 대한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좋다. 이미 우리 MBC 문화방송이 방영한 신천지에 대한 특집방송, 또 영생교에 대한 보도 자료는 물론 많은 방송동영상 자료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총회 홈페이지에서 “이단경계주일을 지킵시다”라는 동영상을 다운받아 상영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또한 총회 이대위에서 제작한 “이단경계주일을 지킵시다”라는 포스터를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각 개교회에서 이단에 대한 경계주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 지역 교계 전체가 이단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 2) 교회학교를 통한 이단경계주일 홍보

이단경계주일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교회의 각 부서의 참여가 요청되지만 아무래도 교회학교에 이단들의 실상을 알리는 교육이 중요하다.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은 이단에 빠진 친구들이나 동료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짧은 드라마를 만들어 오후 예배시간을 활용하여 공연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이단경계주일 포스터를 작성하여 전시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고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단에 빠진 청소년들에 대한 실상을 전하는 사진 전시회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이단들이 운영하는 학원이나, 영어 경시대회 등 학업과 관련하여 접근하는 이단의 실체에 대해서 교육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접근하는 이단들의 실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이다.

## 3) 주요 이단들에 대한 성인교육

이단들의 실상에 대해 바르게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에 대해서는 교리적인 비판, 성서적인 해석의 오류, 교주들의 신격화, 이단추종자들의 반사회적 물의, 교주들의 일탈행위 등 다양하게 교육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래도 이단들을 경계하는 교육 교재가 필요할 것인데 이에 대해서 차후에 이대위에서 제작하여 배포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이미 제작되어 배포된 「우리 주변의 이단들」, 「신천지 집단에 대한 긴급 경계령」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교육할 수도 있다. 또한 총회 홈페이지 이단사이비상담소에 실려 있는 우리 총회의 주요 결의사항을 통해서도 이단의 실상을 교육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에 많이 도입되고 있는 귀납적 성경교육방법(특 토론식 성경공부 방식)을 활용하여 이단들에 대해 교육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는 교회 내에 침투한 이단들을 색출하는 방식에 대해 철저하게 논의하고 토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이단들에 대한 교인 교육은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할 것을 권한다.

첫 번째 모임 : 일반 방송에서 방영된 동영상 함께 보기

두 번째 모임 : 주요 이단들의 교리에 대한 소개와 반박

세 번째 모임 : 주요 이단들의 활약과 교인들 미혹방식 소개 및 토의

네 번째 모임 : 이단에 미혹된 성도들의 실상과 대처방안

위와 같은 방법은 전 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도 있고, 각 구역별로 또는 교구별로 모여 실시할 수도 있다. 이런 방식과 함께 교회 내에 여러 사진전이나 포스터를 통해 이단에 대한 경계심을 강화하고 주일 예배 후 오후 예배는 외부 초청 강연을 통해 마무리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 4) 이단경계주일 예배 준비

이단을 경계하는 주일을 지키는 것의 하이라이트가 주일 예배를 감동적으로 드리는 것이다. 이 예배를 통해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겠다는 결단을 다지게 되며, 나아가 우리의 전통을 더욱 정확하게 알고, 이단과 대처하는 신앙적 용기를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주일 예배는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목회활동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대로 목회자들은 다른 일상의 업무도 많기 때문에 또 이단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곤란을 예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서는 이단경계주일을 지키기 위한 목회 자료집을 제작하였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단을 경계하는 성경구절들

이단경계주일에 사용하는 교독문

이단경계주일에 사용하는 공동기도문

이단경계주일에 사용하는 설교문

(주요 이단들의 교리비판, 회복과 치유, 상담, 성경주해, 우리 교회가 이

단에 대처하지 못한 반성과 회개 등을 담은 내용의 설교)  
우리 교단의 이단에 대한 주요 결의 및 연구 보고서

또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교회 홈페이지와 교단 이대위 상담소 자료집을 연계시킬 것이며, 이단경계주일을 지킬 때 사용하는 동영상도 사용하면 좋을 것이다. 물론 이단에 대한 동영상은 인터넷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 문제와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상영하면 된다. 한편 이단경계주일 예배 후 오후예배나 저녁예배는 전통적인 예배에서 벗어나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온 성도나 또는 이단 전문가를 초청하여 집회를 갖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후 지속적으로 이단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처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 3. 이단경계주일 실시

#### 1) 마지막 점검

앞에서 논의한 준비 과정을 마치게 되면 이제 이단경계주일을 맞이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점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교인들에게 이단경계주일에 대한 충분한 홍보는 되었는가? 음악위원회는 찬양대 및 담당자들이 적절한 찬양을 준비하였는가? 본문과 이에 대한 설교는 준비되었는가? 교육위원회에서 각 교회학교에서 사전교육은 잘 진행되고 있는가? 예배위원회에서 홍보물 게시와 주보는 잘 준비되었는가? 행사위원회에서 오후 예배 시 외부 강사 초청 시 사전에 연락은 제대로 되었는가 등을 치밀하게 점검하고 이단경계주일을 맞이해야 할 것이다.

#### 2) 이단경계주일 예배

담임목사는 총회 이대위에서 준비하여 배포한 「이단경계주일을 위한 목회 자료집」의 교육문과 공동기도문을 주보의 예배 순서지에 넣거나 또는 별

지로 인쇄하여 예배에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날 예배만큼은 엄숙하면서도 결의에 찬 예배가 되도록 목회자 자신이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담임목사는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 약 3분 정도로 제작된 “이단경계주일을 지킵시다”라는 동영상을 교인들에게 보여 주고, 자신의 설교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자료는 이단의 실체에 대해 그리고 그 폐해에 대해 간결하게 요약하여 전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 전에 보여 줌으로 설교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설교문은 총회에서 제작한 목회 자료집에 예시된 설교문을 참조하여 자신의 교회에 맞게 또 목회자 자신에게 적절하게 작성된 설교를 선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설교는 매우 힘차고 호소력 있게 전해야 하며, 미리 설교의 전달을 위한 리허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설교를 통해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들이 얼마나 교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쉽게 이들에게 미혹될 수 있는지 열정적으로 설교해야 할 것이다.

설교 도중에 직접 이단에 빠져 고생하거나 가정이 파괴되어 고통당하는 사례를 소개하여 설교의 내용에 교인들이 더욱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예배가 끝나면 교인 대표가 이단에 대해 경계하며 교회를 지킬 것을 다짐하는 결단으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배가 이단을 경계하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출정하는 출정식을 계획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 3) 오후 예배 특별 순서

오후 예배는 전통적인 예배에서 벗어나 다양한 순서를 통해 다이나믹한 예배의 기쁨을 경험하도록 계획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간단한 이단의 폐해에 대한 단막극을 만들어 공연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만약 여의치 않다면 현대종교사의 협력을 얻어 만화로 보는 이단의 정체 같은 것을 대형 스크린으로 함께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는 이단들의 실체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러 자료

를 함께 나누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좀 규모가 있는 교회라면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와 자신이 경험한 이단의 세계에 대해 강연할 수 있는 인사를 초청하여 간증을 듣는 집회를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자녀를 빼앗겼다 일인 시위를 통해 되찾아 온 아버지의 강 의도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생생한 증언은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총회 상담소의 전문위원들과 상담요원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 4) 평가와 반성

이렇게 이단경계주일을 지킨 후 반드시 평가와 반성의 시간을 통해 내년 도에는 어떻게 발전된 모습을 가질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각 위원회별로 홍보는 제대로 되었는지, 교회 내외의 장식이나 걸개는 제대로 제작되어 사용되었는지, 교회학교에서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예배는 계획대로 진행되었는지, 음악과 찬양은 적절하게 진행되었는지, 적절한 기자재는 동원되어 활용되었는지, 기타 행사를 진행한 후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한다. 특히 당부드릴 것은 이러한 평가를 노회 이대위에 꼭 보고하여 총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총회 이대위는 이런 평가를 바탕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다 정밀하게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평가에는 다음 사항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이단경계주일의 교육적 효과는 어떠했는가? 그리고 교회가 교육적 사명을 감당하는 데 이단경계주일은 어떻게 기여하였는가? 둘째, 우리의 자녀들에게 접근하는 이단들의 실체를 잘 파악하고 이들에 대해 교회학교에 잘 전달 하였는가? 이러한 이단들의 사회봉사활동, 문화활동, 기업활동, 대학 동아리 활동 등을 잘 알려 주었는가? 나아가 이들의 반사회적이고, 가정파괴적인 활동에 대해서도 충분히 전달하였는가? 셋째, 이단경계주일을 통해 예배가 활성화되고 특별한 경험을 하는 계기가 되었는가? 목회의 주요 활동은 역시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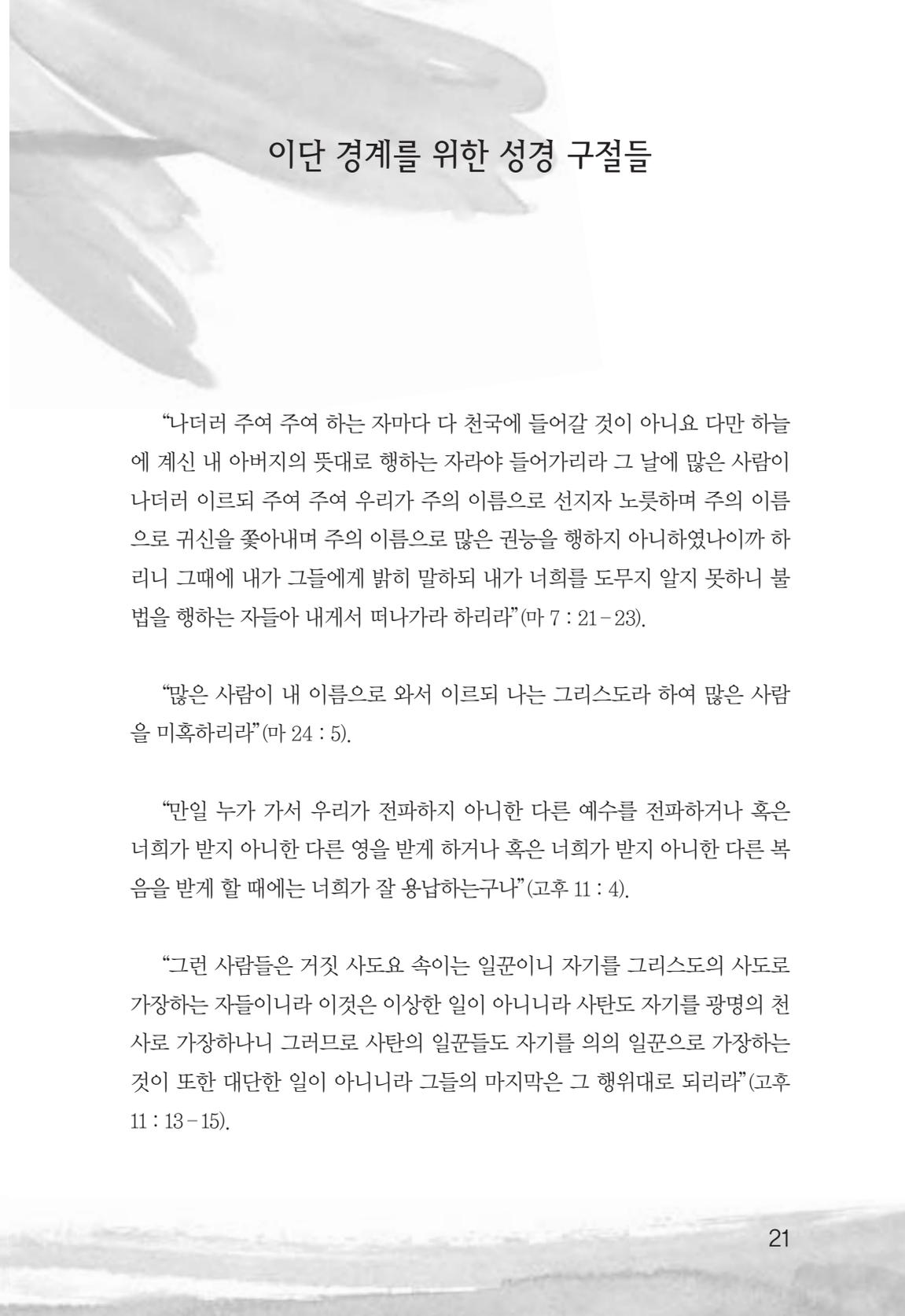
배이기 때문에 실험적이고 다양한 예배의 도입은 목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이단경계주일을 통해 일방적으로 왜곡되고 있는 한국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는가? 특히 젊은이들에게 한국교회의 부정적인 여론이 인터넷이나 SNS로 무차별적으로 전달되는 현실에서 젊은이들이 건전한 교단의 교회와 이단 내지는 무자격 목회자들의 교회와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을 주었는지 평가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단경계주일을 통해 목회자 자신의 목회에 대한 사명과 헌신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단에 빠져 고통당하는 우리 주변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다시 올바른 길로 돌이키도록 결단하는 것을 통해 목회자 자신의 목회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 4. 나가는 말

이상에서 우리는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단경계주일을 지키는 일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계획, 홍보, 교육, 예배, 사후 평가로 물 흐르듯이 준비되어 이 행사가 성공리에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단의 활동에 의해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는 만큼 이 행사의 성공여부는 대단히 중요한 한국교회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행사를 통해 우리 교단의 위상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재 한국교회에 여러 교단들이 있지만 이단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대책을 발표하는 교단은 우리 교단을 비롯한 불과 몇 개 교단에 머물고 있다. 그중에서도 우리 교단의 연구보고서는 다른 교단에 큰 영향을 끼쳐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교단이 다시 한번 이단경계주일을 지킴으로 다른 교단을 이끄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일을 계획하고 도모한다 할지라도 이를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안다. 따라서 이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 하

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겸손히 차근차근 준비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서도 일선의 목회자들이 바쁜 목회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집을 만들어 공급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번 경계주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기도한다.



## 이단 경계를 위한 성경 구절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마 7 : 21-23).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마 24 : 5).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고후 11 : 4).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고후 11 : 13-15).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갈 1:6-9).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딤후 1:15).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벧후 2:1).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벧후 3:16).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요일 1:8-10).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

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요일 4:1-3).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요 1:7-11).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계 22:18-19).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사 9:16).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 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마 13:34-35).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마 24 : 26).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딤후 3 : 9-10).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마 24 : 23-26).



|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설교 |

# 감히 하나님을 속이는 이단들

허호의 목사(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전문위원)

## I. 교독문(벧후 2 : 1-3)

인도 :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회중 :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인도 :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회중 :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인도 : 또한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회중 :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인도 :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다같이 :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 II. 공동기도문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택한 신자들을 미혹하고 주께서 피로 값 주고 사신 교회를 허물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거짓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주시고 교회를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세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비방하고 대적하는 세력들이 없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바르게 세워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신자들을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바르게 일깨워 주셔서 교회를 비방하고 대적하는 이들을 부끄럽게 하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수많은 이단사이비 집단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들에게 미혹된 이들이 모두 가정과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는 이단 집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시오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III. 설교

### 1. 이단은 왜 발생하고 성장할까요?

한국교회에 최근 많은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100개가 넘는 이단에 속한 신자들은 100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추산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제는 이단경계주일을 지켜야 할 정도입니다. 이단이 무엇일까요? 흔히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끝에 가서 잘못되는 것이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아주 정확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단’ (異端)이라는 단어 중 ‘단’ (端) 자는 끝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옥편에 찾아보면 바르다, 곧다, 옳다,

진실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단은 바르지 않은 것, 진실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이단은 사설(邪說), 즉 사악한 가르침을 뜻합니다. 이단(異端)은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나중에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거짓된, 사악한 가르침(邪說)을 의미합니다.

2000년 전에 쓰인 신약성서에는 이미 이단의 주요한 특징들이 명확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단들을 ‘거짓 선지자요 거짓 선생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단은 그 속에 진리가 전혀 없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요 8 : 44)이며, 사교집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통교회가 고백해 온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교리를 현저하게 왜곡하여 거짓된 교리를 주장하는 거짓 예언자 또는 거짓 교사를 이단(벤후 2 : 1)이라고 합니다.

이단이 왜 발생하고 성장할까요? 첫째로 속이는 사람과 속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마 24 : 11). 성경을 제멋대로 거짓되게 잘못 해석하는 이단 사이비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거짓을 말하는 자와 몰라서 잘못 말하는 자입니다. 전자는 겉으로는 친절하고 호의적이지만 그 본심은 간교하고 사악한 자이고, 후자는 무지한 자로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듯 결과적으로 자신도 속고 남도 속이는 사람입니다. 어느 시대든 알고 속이는 자와 모르고 속이는 자가 있으며, 이에 동조하는 바람잡이가 있고, 그리고 어리석거나 욕심으로 인해 판단이 흐려져 속는 줄도 모르고 속는 사람이 있기에 이단과 사이비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단들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고후 11 : 4)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계시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해 성서는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렘 14 : 14)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거짓 계시를 일삼다 보면 거짓에 마비되고 중독되어 거짓을 거짓인 줄 모르고 오히려 거짓을 즐기게 됩니다. 스스로 거짓의 달콤함에 빠지고 이에 많은 사람들

이 추종하게 되면 자신의 거짓을 절대적인 진리로 착각하고 기만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이적과 기사’를 보이기 때문에 더욱 성행하는 것입니다(막 13 : 32). 무당이 작두를 타고 마술사들이 마술을 보여 주듯이 이단들도 때로는 거짓된 이적과 기사를 꾸며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바로 깨닫고 철저히 행하고 힘써 전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요상한 기적에 더 현혹되기 때문에 이단에 미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마 12 : 39)라고 하였고, 바울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전합니다”(고전 1 : 22-23)라고 하였습니다.

넷째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무리’(마 9 : 36)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불안과 절망에 빠져 있거나, 제도적인 기성교회로부터 개인적 안정감이나 종교적 욕구나 친밀한 소속감을 얻지 못할 경우 이단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기존 사회나 정통교회에서 극도로 소외되고 갈 바를 알지 못해 아노미(무규범) 상태에 빠진 이들이 거짓 목자에게 미혹되어 헛된 소속감과 환상을 주는 이단을 맹목으로 추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 종교적, 실존적 위기와 소외가 이단 성행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다섯째로 말세에 악한 영이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이단이 더욱 성행하는 것입니다(벧전 5 : 8). 이단에 빠진 사람들 가운데는 신앙에 열심이었던 사람도 많으며, 학식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단에 빠지는 것은 악한 영에 미혹되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엡 6 : 12)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근절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단과의 투쟁은 거짓 세력과의 투쟁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대항하는 것이므로 세상 끝 날까지 계속되는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 하나님의 교회는 가장 가증스러운 이단입니다

이단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이단과 전통을 분별하는 기준에 대한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기준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신앙고백의 내용 중 그 어느 하나라도 부정하거나 현저하게 왜곡하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에는 전능하시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더불어 성령을 믿는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사악한 이단은 기독교의 이름으로 교주를 신격화하는 집단들입니다. 그중에도 심각한 것은 교주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단입니다. 여기에는 교주의 부부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이단이 있으니 경악할 노릇입니다.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그런 이단입니다. 안상홍은 안식교 교인이었는데 안식교 교리를 반박하고 초대교회의 진리가 자신을 통해 회복될 것임을 계시 받았다고 주장하여 1962년 3월 17일 안식교에서 출교당했습니다. 그 후 그를 추종하는 23명의 신자들과 함께 안식교를 탈퇴하고, 1964년 4월 28일 부산에서 하나님의 교회 예수증인회를 창립하고 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1981년 안상홍은 그의 두 번째 아내 장길자(1943년 10월 29일생)를 신도들에게 ‘어머니 하나님’으로 칭송하게 하였습니다. 1895년 안상홍 사후 그의 추종자들은 본부를 부산에서 서울 관악구 봉천동으로 옮겼고, 6월 2일 교회 명칭을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로 개칭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상홍의 아내인 장길자를 어린 양의 신부,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위에 있는 어머니라고 주장합니다. 1985년 안상홍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만 해도 소속 교회 10여 개로 미미하던 교세는 당시 약관 20대로 총회장을

말은 김주철 목사가 공격적인 선교에 나서면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 3. 안상홍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정관 1장 4조(安商洪님)에는 안상홍이 성령 하나님이며, 예언에 따라 오신 재림 그리스도이며, 이 시대의 구원자로서 지상의 마지막 교회인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하신 후 승천한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① 안상홍님은 성령시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시다.
- ② 안상홍님은 다윗의 예언으로 이 땅에 오신 재림 그리스도이시다.
- ③ 안상홍님은 뿔기세택의 반차로 이 땅에 오신 재림 그리스도이다.
- ④ 안상홍님은 예언에 따라 오셨고 예언에 따라 진리로 이끄셨고, 예언에 따라 올리우셨다.
- ⑤ 안상홍님은 예언에 따라 지상의 마지막 교회인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 하셨다.

안상홍 증인회는 마지막 엘리야가 안상홍이라고 주장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동편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었으므로, 동방에서 태어난 안상홍이 마지막 엘리야라고 합니다. 이런 식의 논리라면 동방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 엘리야가 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구약성서에 나오는 선지 엘리야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뜻이므로 '하나님 여호와'가 바로 안상홍이라는 것입니다.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라는 공식 명칭은 따라서 안상홍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집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산 석계공원묘지에 있는 1985년 죽은 안상홍의 묘비에는 '선지 엘리야 안상홍의 묘'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홈페이지에

는 안상홍이 '1985년 2월 승천' 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승천했다고 주장하는 안상홍의 육신이 공원묘지에 안장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만저만한 논리적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2002년 월드컵대회를 통해 안상홍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는데, 안정환의 '안'과 유상철의 '상'과 홍명보의 '홍'이 그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일반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한심하여 웃음이 나겠지만,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하나님의 교회 신자들 중 일부는 감격하여 울음을 터트렸다는 내용을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상홍 증인회에 따르면 선지 엘리야 안상홍은 하나님 여호와로서 하나님 아버지일 뿐 아니라 성령시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들이 안상홍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주장을 하는 배경에는 시대마다 기도의 대상이 다르다는 교리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고, 신약시대에는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지만 성령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신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안상홍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친 것은 전무합니다.

이들은 안상홍을 성령 하나님인 동시에 재림 그리스도라고 주장합니다. 안상홍이 재림 그리스도인 이유에 대해서 예수가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는 사실로 논증합니다. 다윗의 재위 기간이 40년인 데 비해 예수님은 공생애가 3년밖에 되지 않으므로 '다윗의 왕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려면 나머지 37년의 기간을 채워야 할 재림 예수가 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안상홍이 재림 예수의 육체를 가지고 암행으로 다시 오셔서 예수가 채우지 못한 37년을 다 채우고 죽었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안상홍은 1948년 12월 16일 세례를 받은 후 37년간 사역을 행한 후 1985년 2월 25일 67세의 나이로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동방에서 태어나 37년간 사역한 사람이 안상홍 하나뿐일까요? 이처럼 성경의 가르침과 기독교의 정통 교리를 현저하게 왜곡하여 안상홍을 재림 예수로 주장하는 것은 기독교적

으로 볼 때 명백한 이단입니다.

#### 4. 장길자를 하나님 어머니라고 합니다

안상홍 증인회는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그의 두 번째 아내 장길자는 하나님의 신부이고, 안상홍이 하나님 아버지이므로 그의 아내 장길자는 하나님 어머니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정관 전문에는 “이 마지막 시대인 성령의 시대에는 성경의 증거대로 새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 안상홍님의 이름과 성령 하나님의 신부 되시는 어머니 하나님(張吉子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믿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 안상홍과 하나님 어머니 장길자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불경스러운 주장을 서슴치 않습니다.

이들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엘의 복수형인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하나님은 복수인 ‘하나님들’로 존재하며, 이 복수의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창세기 1장 26~27절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하나님을 모델로 하여 사람을 창조하시니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었다면, 하나님의 형상 안에 남성적인 형상과 여성적인 형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하신 말씀 속에서도 ‘우리’라는 말은 분명 단수가 아닌 복수 개념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 아닌 두 분, 즉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께서 함께 세상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내용을 통해서도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 우리가 내려가서……’라고 말씀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도 존재하심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서는 인류에게 아버지 하나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도 존재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육체의 아버지와 더불어 영의 아버지가 있듯이(히 12:9), 육체의 어머니와 더불어 영의 어머니도 계신다.”고 합니다.

심지어 안상홍 증인회의 찬송가인 「새노래」 25장에는 안상홍과 장길자를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노래합니다.

찬양하세 안상홍님 어머니를 찬양하세  
세세무궁 안상홍님 어머니를 찬송하세  
하늘의 온갖 별과 해와 달과 천지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신 안상홍님 어머닐세  
그 옛적 깊고 넓은 홍해 바다 가르시고  
시내산에 강림하사 모세에게 계명 주신  
전지전능 하나님 안상홍님 어머닐세  
세세무궁 찬양하세 세세무궁 찬양하세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을 영접하고 있기에 성경에 기록된 새 언약의 자녀”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 어머니가 있어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 어머니가 없다면 어미 없는 자식이 된다고 그런 만화가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성서의 복수형 신명 엘로힘은 전통적으로 삼위일체론적으로 해석되어 왔고, 최근에서는 ‘존엄의 복수형’으로도 해석됩니다. 히브리어 어법에는 단수로 존재하는 하늘, 성전 같은 존엄한 대상을 단수형이 아닌 복수형으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의 바알 종교에서는 남신과 여신이 존재하였지만, 성서의 가르침에 따르면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어머니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안상홍 부부를 하나님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엄청난 신성모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상홍 증인회는 2002년 제87회 예정통합총회에서 ‘교리적 탈선, 성경 해석의 오류, 왜곡된 구원관 등’을 이유로 반기독교적 이단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안상홍 집단을 안식교 계열로서 성경적으로 비판할 가치조차 없는 이단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합신(2003년 88차 총회)과 합동(2008년 93차 총회), 고신(2009년 59차 총회)에서도 각각 이단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교회는 인터넷을 통해 그들의 교리를 주장하는 무수한 만화를 퍼트리고, 이주노동자 포교에 집중하고 동남아시아의 교세에 확장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 5. 하나님께는 진실만이 통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 봅시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베후 2:1).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요, 사탄의 세력인 이단들은 이처럼 주를 부인합니다. 이단들은 감히 하나님 아버지를 속이려고 합니다. 특히 안상홍 증인회는 안상홍을 하나님 아버지로 장길자를 하나님 어머니라고 주장하니 이런 가증한 거짓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이단들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자들입니다. 감히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사악한 자들입니다. 안상홍과 장길자가 전지전능하고 천지만물을 창조했다고 주장하니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일까요? 그런데 인간들이 영적으로 미혹되고 집중적으로 세뇌되어 이단에 중독되면 이런 가증하고 어리석은 신앙에 빠져듭니다.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바울은 기독교신앙을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진실이 아닐까? 세상에는 거짓되고 위선적인 믿음, 거짓되고 이기

적인 사랑, 거짓되고 허황한 소망이 판을 치기 때문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진실된 믿음, 진실된 사랑, 진실된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잠시 잠깐 거짓이 통하지만 하나님께는 거짓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속이려는 이단들에게 미혹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겠습니다.



| 구원파에 대한 설교 |

# 구원파가 간파한 진리

(딤펴전 1 : 15, 마 7 : 13-27)

최태영 목사(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전문위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딤펴전 1 : 15).

박옥수 씨와 그가 중심이 된 기쁜소식선교회는 신구원파로 불려지는데, 비교적 역사가 깊은 권신찬 계열을 구원파라고 할 때 역사가 짧다고 하여 그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박옥수 씨는 권신찬과 덕 욱이란 선교사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예수교복음침례회란 이름으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주로 ‘기쁜소식선교회’ 및 ‘TYF’ 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옥수파나 권신찬파나 이요한파는 모두 구원파에 속하는데, 그 주장하는 바가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구원 문제에 집중적 관심을 기울이므로 구원파란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구원파 중에서 박옥수 씨는

비교적 지성적인 사람으로 설교에 있어서는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어 따르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기성교인들 가운데도 그의 설교에 감화를 입어 추종하는 자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는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책과 또 다른 저서들, 강연들을 통하여 자기의 신학을 전파하고 있는데, 이 책들의 내용은 일반 성도들로서는 그 이단성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상당히 성경적인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박옥수파는 이단 중에서는 비교적 지성적인 이단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옥수 씨가 주장하는 바는 상당 부분 성경적 근거와 타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사람은 아닌 듯합니다. 나름대로 성경 연구를 열심히 하였고, 구원론 특히 칭의론을 매우 쉽게 잘 가르치는 장점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교회 목회자들도 도전을 받을 만합니다. 현대의 교회가 설교나 교리공부시간을 통하여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인 데 비해, 박옥수파는 구원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구원의 진리에 관한 한 교인들로 하여금 일가견을 갖추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은 매우 좋은 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르침이 성경적인 데도 있지만 확실히 비성경적인 면이 동시에 있고, 그 비성경적인 면은 구원교리 및 신앙생활 전반에 현저한 낭패를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회에서는 그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교인들로 하여금 주의하도록 촉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박옥수파의 어떤 가르침이 문제입니까?

**구원파의 첫 번째 오류는 구원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자기들만 알고 일반 교회는 모르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면 소위 정통교회에 속한 교인들은 자기 교회의 목회자들이 구원교리를 잘 모르거나 잘못 가르친다고 생각하게 되고, 결국 자기 교회와 목회자들을 불신하여 교회로부터 떠나기 쉽게 될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자기들만 알고 정통성을 가진 보편 교회는 모르고 있다는 생각 자체는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집단으로 생각함으로써 보편 교회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키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이단이란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분리된 집단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교회를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집단으로 생각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생각입니다. 개신교의 역사적 뿌리인 16세기 종교개혁운동이 무엇인가를 생각만 해도 이들의 생각은 터무니없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운동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진리, 특히 구원의 진리를 바로 알고, 바로 믿음으로써 기독교를 바른 구원의 진리 가운데 세우는 운동이었습니다. 그 운동에서 나온 중요한 명제들이 바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구원의 진리가 오직 성경에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철저히 연구하는 운동이었으며,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을 알고, 모든 업적주의와 행위구원사상을 배격하였습니다. 종교개혁운동 곧 개신교운동은 성경적 바른 구원운동이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에 관한 결정적인 교리는 종교개혁사상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의 구원파도 이 종교개혁운동으로 말미암은 개신교에 속하는 집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의 구원론에 근거하고 있는 교회에 구원의 진리가 없고, 오직 자기들만이 성경적인 구원 진리를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훼손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혹시 현대의 많은 개신교가 종교개혁교리에서 벗어나 있다면, 루터와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의 성경적 구원론을 소개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해야만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는 바른 구원운동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 구원파는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치는 일부의 진리에만 집착한 나머지, 온전하고 바른 교리에서 벗어나는 오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적인 구원의 진리를 50%만 알고 그것만 주장하면서 교회를 잘못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는 셈입니다.

구원파가 바로 알고 가르치는 50%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종교개혁자들의 3대 구호 속에 들어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이 오직 은혜와 믿

음을 가르친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것은 바른 가르침입니다.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구원교리를 등한히 하는 것은 비판을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이 점에 관한 한 구원파는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파를 쓰셔서 구원의 기본교리를 등한히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회개시키고 계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파의 문제는 나머지 50%를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 구원파의 두 번째 오류는 그리스도인은 의인이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죄용서 받고 의인이 되므로 다시는 죄인으로 여기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한 번 회개할 뿐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이 자꾸 회개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며, 죄인인 이상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것이 구원파 교리의 결정적인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파는 회개의 개념을 50%만 알고 있습니다. 회개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단회적 회개이고, 다른 하나는 계속적 회개입니다. 구원파는 단회적 회개만 알고 계속적 회개 개념은 모르고 있습니다.

단회적 회개란 죄인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회심이라고도 합니다. 마음을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죄짓는 대로 향하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이런 의미의 회심이고 회개입니다. 이것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죄에 속했던 자가 하나님께로 속하게 되는 것, 곧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과 같은 일은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여 더 이상 죄를 안 짓게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죄를 짓는 본능이 우리 몸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하여 죄를 짓는 생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면서 죄짓는 질과 양이 점점 줄어들겠지만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죽을 때까지 불가능합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옛날에 살던 동네가 그리워서 가끔씩 놀러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원하지 않는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마음에 죄라는 때가 끼었으므로 회개하여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를 위한 계속적 회개라고 합니다. 이런 회개는 일평생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파는 회개를 회심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일생에 단 한 번 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사실상 그들의 회개 개념은 보편적인 회개 개념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의 회개 개념은 구체적으로 범한 죄들을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회개라고 가르칩니다. 자세히 말하면 회개에는 3단계가 있는 셈입니다. 첫 단계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는데, 그것은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박옥수 씨가 가르치는 회개이며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은 칭의론적으로 맞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박옥수 씨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법적으로는 의인이 되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신분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주장을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죄를 구체적으로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구체적으로 범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박옥수 씨의 처방이 없습니다. 그는 그저 예수께서 단번에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 “나에게는 죄가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의인이다.”라고 계속 주장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자기의 회중들에게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면서 소위 기쁜 소식을 전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죄를 짓

고 있으니까, 혹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죄 지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죄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가르치지를 못합니다. 우리도 죄를 짓는다고는 말하지만 그것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의 문제이고 구원파의 오류인 것입니다.

구원파 사람들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을 배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대목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는 주기도문이 필요하지만 그 이후에는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이미 예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 지금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죄용서에 대한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짓기 전에 우리가 지을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미 용서받은 죄를 우리가 짓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그들은 죄를 짓고도 용서를 구할 마음을 가지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죄를 지으면서도 내 죄는 진작 다 용서되었으니까, 죄인으로서의 마음, 겸손히 낮추는 마음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는 의인이요라고 주장하면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의식을 부인하면 된다는 격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주장입니까?

정통성 있는 교회와 구원파의 교리적 차이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용서받은 죄인, 곧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김받지만 그러나 죄인이라고 여기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항상 의인으로 여기는 것이 옳습니까? 믿은 이후로도 죽을 때까지 계속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항상 의인으로서의 태도를 가지고 일절 용서를 구하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을 판단하는 데에는 단 한 가지 질문으로 충분합니다. 곧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도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정답입니까?

정답은 전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의인으로 여겨 주시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죄인으로 인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 곧 디모데전서 1:15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기서 괴수니라라는 말은 현재형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괴수였지만 지금은 개가천선하여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여전히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는 사도 바울의 일생 중에서 성숙한 말년이었습니다. 거의 성인의 반열에 오를 만한 때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게 되는데, 하나는 사도 바울 같은 성자까지도 죄의식을 느끼고 있을 만큼,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누구나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신앙인격이 성숙하면 할수록 자기 죄에 대하여 민감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같은 분이 죄인이라면 누가 죄인이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구원파 사람들은 자기들은 더 이상 죄인이라고 의식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들은 그 구절의 현재형은 역사적 현재용법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바울이 자신의 과거에 대해 한 말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성경의 정확무오함을 스스로 부정하는 오류를 더하고 있을 뿐입니다.

바울은 또 말하기를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하였습니다(고전 10:12). 예수를 믿으므로 이제 됐다라고 안심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죄와 무관한 말씀이라고 보는 것은 위험한 해석입니다. 사람이 죄짓지 않고 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도 죄에서 모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구원파처럼 자기는 죄와는 무관한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단 기분은 좋을지 모르나 뒷감당이 안 되는 억지일 뿐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으로 오류이고 실제적인 삶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파의 세 번째 오류는 그들의 교리대로 살면 죄에 무감각해지고 성화를 이루지 못함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현실적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칭의론에 근거하여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임을 주장함으로써 구체적인 죄를 인정하지 않고, 따라서 구체적으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미 용서받았다고 하니 당연히 회개를 할 수가 없고, 이와 같은 교묘한 변명으로 인하여 결국 구체적인 범죄를 가볍게 여기게 될 것이고, 날이 갈수록 점점 죄는 쌓이게 되고, 죄에 대해 감각이 없어지고, 이러니 성화는 아예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예수 믿는다는 이름만 있지, 온갖 회개하지 않은 죄가 가득한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그 길은 필경 사망의 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고 하셨습니다. 곧 구원의 문은 좁은 문입니다. 구원의 길이 그렇게 쉽지 않음을 가르칩니다. 어쩌다가 은혜로 선택을 받았으니 이제 안심이다, 나는 구원의 로또에 당첨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개신교의 문제인데, 구원파는 더욱더 쉬운 것으로 가르칩니다. 구원은 너무 쉬운 것, 나는 이미 얻었으니까, 이제는 놀러 다녀도 괜찮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제는 됐다 하고 방심하는 순간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신 다음,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기에 틀림없는 자라고 여김 받는 자 중에서 몇 종류의 사람들을 지목하며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낸 사람들, 곧 유명한 사역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전혀 아는 바 없다고 하시며, 천국의 문을 열어 주지 않으신다 하였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봅시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고, 교회의 집사이고, 권사이고, 장로이고, 나아가서 교회의 목사이기도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들은 유명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시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무와 열매 이야기를 이미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보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나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고, 나쁜 나무는 아닌 사람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 좋은 열매는 선행을 가리키고, 나쁜 열매는 악행, 불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곧 구원을 얻는 것은 좋은 나무여야 합니다. 그런데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선행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선행은 그가 구원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말로써 구별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좋은 나무라고 주장해도 그렇게 말로만은 안 됩니다. 불법을 행하는 선지자들처럼 자기가 아무리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주장해도, 그 말로써 그가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가 하는 행실이 보여 줍니다. 그가 선행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의 말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말은 거짓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입으로 신자라 하면서 교회에 출석한다고 다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종교개혁자들인 루터와 칼빈의 견해를 살펴봅시다.**

루터와 칼빈은 이신칭의론, 곧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교리를

철저히 가르쳤습니다. 구원파도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개혁자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칭의, 곧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이지 신자들이 실제로 의로워진 것은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고 여기시지만 그들이 실제로 의로워진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의로워지는 성화는 칭의의 순간에서부터 시작하여 죽어서 영화로워질 때까지 계속 이루어 가야 할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 (simul iustus et peccator)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형용사이지만 죄인은 명사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의롭다고 여김 받더라도 죄인은 죄인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죄인은 죄인입니다. 다만 죄용서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상태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종교개혁자들의 인간론과 구원파의 인간론은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개혁자들과 정통교회는 그리스도인을 본질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여김을 받는 자로 봅니다. 그러므로 아직 죄인인 그리스도인은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부응하기 위해 참으로 의로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구원파는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는 주장만 강조함으로써 죄인으로서의 본질에 눈을 감고 구체적인 회개와 의로워지고자 하는 노력을 등한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죄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의 사도 바울의 탄식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은 자기 속에 두 가지 법이 있어서 서로 싸운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에서의 실존을 잘 말해 줍니다. 우리는 천사처럼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는 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불신자처럼 죄만 짓는 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둘 사이에서 순간순간 선택하며 사는, 의롭다고 인정된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면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쓸 것이고, 그때는 완전히 의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한, 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점점 성화되어 갈수록, 죄를 점점 더 적게 짓게 되겠지만, 불꽃같은 주님의 눈앞에서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무관한 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많은 적든 죄를 지으며 하루하루를 삽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실존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항상 겸손하게, 그리고 회개하면서 살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죄를 지으면서도 나는 죄와는 상관없는 의인이다라고 자기 최면을 거는 식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을 죄로 인식 안 하고, 따라서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용서받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사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죄에 마비된 양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의 삶은 점점 더 죄를 쌓아 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신앙양심이 마비된 가운데 죄를 점점 쌓아가는 삶을 산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그만큼 죄에 대하여 민감했기 때문입니다. 작은 죄도 큰 죄로 여기는 사람과 큰 죄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 때 누가 더 의로운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죄도 큰 죄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날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여 작은 죄도 크게 보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버림으로써 자기 자신을 점점 더 성화시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 기쁜소식선교회의 교리를 잘 보여 주는 웹사이트 :  
<http://www.goodnews.kr/kr/html/missioninfo/mission06.php>  
<http://www.goodnews.kr/kr/html/missioninfo/mission07.php>

| 통일교에 대한 설교 |

# 문선명 집단의 정체와 대처방안

탁지일 목사(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전문위원)

## I. 교독문

인도 :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회중 :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인도 :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회중 :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벧후 2 : 1)

인도 :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회중 :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마 24 : 24)

인도 :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회중 :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요일 5 : 4-5)

## II. 공동기도문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주변의 미혹하는 이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혹하는 자들에게 담대히 맞설 수 있는 거룩한 용기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주님이 임하실 때에 이루실 최후의 승리를 믿고 소망하며, 이 마지막 때를 신실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III. 성경본문

“예수께서 감람 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마 24 : 3-5).

## IV. 설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단이 생겨나는 것은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와 세상 마지막 때의 필연적인 표징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지 말고 신실하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이단들은 한국전쟁의 혼란기를 전후로 해 본격적으로 발흥하게 됩니다.

이들 중 대표적인 이단단체가 통일교입니다. 통일교 신도들은 교주인 문

선명과 그의 부인인 한학자를 재림주로 신격화하고, 비성경적인 「원리강론」을 믿으며, 문선명이 왕이 되는 통일교왕국을 한반도에 세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1. 통일교는 문선명을 재림주로 믿는 이단입니다

문선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실패했고, 자신이 참메시아라고 주장합니다. 문선명은 1976년 3월 5일에는 “공자, 석가, 예수까지도 나의 부하”라고 주장했고, 1992년 7월 6일에는 자신이 “재림주요 구세주”라고 주장했으며, 2002년 8월 24일에는 자신과 자신의 부인이 “인류의 참부모, 구세주, 재림주, 메시아”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일교는 한국에 나타난 재림주가 바로 문선명이며, 문선명이 왕이 되는 통일교왕국이 한반도에 세워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통일교는 문선명을 신격화하는 대표적인 한국이단입니다.

### 2. 통일교는 비성경적인 이단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서만을 믿지만 이단들은 비성경적인 주장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리강론」은 통일교의 핵심교리서입니다. 통일교는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1954)에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1994)과 혼독교회(2005)로 그리고 또다시 통일교(2010)로 그 명칭을 변경해 왔으며, 또한 셀 수 없는 외각 조직들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식적인 명칭변경과 다양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문선명의 핵심적인 교리가 담겨 있는 「원리강론」의 중요성과 그 역할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문형진, 문국진 등 통일교 2세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활동은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들 통일교인들의 종교적 목적이란 「원리강론」이 주장하는 바, 곧 문선명이 메시아가 되는 통일교

왕국의 건설을 이루는 것입니다.

「원리강론」이 주장하는 것을 간략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즉, 뱀과 인간(아담과 하와)의 성적 범죄로 인하여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제2의 아담인 예수가 메시아로 강림하였으나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미혼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구원사역이 실패했고, 마침내 제3의 아담인 문선명이 이 땅에 왔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재림한 메시아인 문선명을 통해 한반도에 지상천국이 건설된다는 것이 「원리강론」의 주장입니다. 통일교는 비성경적인 이단입니다.

### 3. 통일교는 북한선교의 최대 걸림돌입니다

「원리강론」이 주장하는 통일교의 지상목표는 문선명이 메시아로 선포되는 통일교왕국을 한반도에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선명이 재림주가 되는 지상천국을 건설하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도 통일교의 성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통일교는 문선명의 고향인 평안북도 정주군 덕언면 상사리에 정주평화공원을 건설했습니다. 통일교의 북한 진출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문선명이 1991년 11월에 평양을 방문하여 김일성과 만나고 남북교류협회합의서에 서명한 후 통일교는 적극적으로 북한에 진출해 오고 있습니다. 이때 김일성은 문선명의 생가를 잘 보존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는 통일교의 성지인 정주평화공원의 개발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통일교는 1990년대 이후로 북한에 적극적으로 진출해 오고 있습니다. 통일교 북한진출의 예를 보면, 평안남도 남포시 항구동에는 평화자동차총회사 종합공장이 세워져 이탈리아 피아트(Fiat)사 제품의 자동차들이 생산되고 있으며, 통일교 산하기업인 평화자동차사가 70퍼센트의 지분을 갖고 북한의 조선연봉총회사가 30퍼센트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통일교는 또한 남북관

계가 원활하지 않았던 문민정부 시절에 이미 평양시내 중심에 보통강 호텔을 세웠는데, 이곳을 김일성이 손수 아홉 차례나 현지 지도를 하였으며, 현재 흑자운영 중에 있습니다. 통일교 평양가정교회도 설립되었습니다.

통일교의 북한진출 현황과 비교해 볼 때 한국교회의 북한선교는 상대적으로 '낭만적'이며, '고비용 저효율'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폭넓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교회의 북한선교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만 하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이미 북한에 정치경제적인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는 통일교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가의 문제입니다.

통일교는 우리 한국교회가 북한선교를 본격화해 나갈 때 필연적으로 부딪칠 수밖에 없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이 대결은 「원리강론」의 내용대로 문선명이 이 시대의 메시아요 구세주로 선포될지,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백여 년 전 그때처럼 다시 북녘 땅에 선포될지에 대한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이 될 것입니다. 문선명을 메시아로 북녘 땅과 세계에 선포하려는 적그리스도 통일교의 세력과 지금으로부터 백여 년 전 뜨거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던 그 땅 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선포하고자 하는 한국교회 간의 피할 수 없는 성전(聖戰)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임박한 가능성을 보면서 한국교회는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영적 무장과 지혜로운 대처를 해 나가야 합니다.

### 4. 통일교왕국이 대한민국 곳곳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북한 진출의 성과를 이룬 통일교가 남한으로의 전면적인 재진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005년 2월 7일자 「주간조선」은 “통일교 돈 3조원이 몰려온다!”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통일교가 막대한 외자(外資)를 앞세워 새로운 사업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통일교가 용인 에버랜드 면적의 10배에 이르는 가칭 ‘국제 해양관광레저단

지'를 여수시 화양면에 건설 중이며, 이를 위해 향후 10년간 1조 6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여의도 22번지의 1만 4천여 평의 부지에는 통일교의 랜드마크(landmark)가 될 컨벤션·쇼핑센터의 건설을 추진하면서 최대 10억 달러를 투자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는 이러한 통일교의 진출이 결코 '종교적인 이념'과 무관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에는 '천주청평수련원'을 건설했고, 2001년 7월의 기공식 이후 이곳에는 문선명 부부가 사후에 머물게 된다는 대지 12,000평, 연건평 9,200평 위에 지상 4층, 지하 2층의 본관과 지상 2층, 지하 2층의 별관으로 구성된 천정궁을 비롯하여 천주청평수련원, 청심국제중고등학교, 청심신학대학원, 청심유치원, 청심병원, 청소년 수련원인 청아캠프, 실버타운인 청심빌리지, 직원숙사인 청아빌라 등이 들어섰습니다. 통일교는 설악면 송산리의 땅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인 청평면 고성리 일대에도 상당한 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엑스포가 유치된 여수에 지역개발을 명분으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정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통일교의 경제부문 후계자인 문국진은 국내 1,400만 평에 이르는 통일교 소유지에 대한 종합리조트 건설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종교부문 후계자인 문형진은 2011년 현재 국내 통일교인의 수가 19,000명이라고 처음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이들이 바로 경제, 정치, 문화를 통해 통일교왕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 5. 최근 통일교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혹자는 통일교의 문선명이 사망할 경우 통일교는 쇠퇴하리라는 전망을 합니다. 하지만 통일교는 '종교조직'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 신념으로 구축된 영향력 있는 '경제조직'입니다. 종교조직은 교주의 존재유무에 따라 그 존폐가 논의될 수 있으나, 경제조직은 대체적으로 그 창업자가 사망할 경우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에 기초한 새로운 후계구도가 구축되고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통일교는 문선명의 아들들인 문형진(종교)과 문국진(사업)을 중심으로 후계구도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후계자로 인정받았던 문선명의 3남 문현진이 소위 자신의 친어머니이며, 통일교의 참어머니인 한학자를 고소하는 일이 최근에 벌어졌습니다. 통일교 교리에 따르면 문선명의 가족은 죄가 없는 참가정인데, 참가정 내에서 그것도 모자(母子) 간에 벌어진 재산 다툼을 보면 통일교는 이단일 뿐만 아니라 사이비종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선명의 최후를 앞두고 통일교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 6. 통일교는 적대적인 이단집단입니다

통일교연구에 있어서 과연 통일교가 기독교인지 아닌지의 문제가 1960~1980년대 동안 집중적으로 다루어졌으며, 이러한 논의는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가 1994년 5월 3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으로 명칭변경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지속되었습니다. 미국교회협의회도 1977년 6월 "원리강론에 나타난 통일교교리에 대한 비판"이란 제하의 공식문서를 발표했는데, 1975년 9월 4일 통일교가 뉴욕교회협의회(gia)의 가입 신청을 위해 뉴욕주대법원에 통일교가 기독교회임을 규명해 달라고 청원하게 되자, 미국교회협의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립하여 「원리강론」을 연구한 후 「원리강론」에는 "전통교회의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와는 다른 주장하고 있으며, 기독교론과 구원론, 은총론에 있어서도 잘못되었다."고 결론 내린바 있고, 일본기독교협의회 또한 1975년 9월 18일에 성명을 발표하여 "통일교는 성서에 기초한 종교"가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통일교는 비성경적인 「원리강론」의 주장대로 문선명이 왕이 되는 지상천국을 한반도에 건설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통일교와 한국교회의 관계가 적대적(敵對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일교는 예수님을 실패자로 보고 대신 문선명을 '메시아', '재림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통일교가 어떠한 외형적인 변화를 시도하더라도 내용적으로는 영원히 기독교이단집단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습니다.

## 7. 통일교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통일교는 수많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선명의 후계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경제활동은 종교적인 목적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의 종교적 목적이란 문선명이 왕이 되는 통일교왕국을 한반도에 세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개교회 차원의 통일교 제품 불매운동이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들이 통일교가 운영하는 사업체를 이용하고, 통일교가 만드는 제품을 산다면 이는 적그리스도인 통일교를 위해 사용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통일교 대처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교 사업체 및 제품을 이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작은 실천이 모여지면 통일교의 경제적인 토대를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실천이 됩니다. 온 교회가 통일교 관련 사업체 및 제품명단을 확인하고 불매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문선명의 통일교왕국을 세우는 첨병의 역할을 하고 있는 통일교 관련 언론 매체, 스포츠단체, 예술단체, 대학동아리 등도 경계해야 합니다.

한국이단의 뿌리가 된 문선명 집단(통일교)은 반기독교적 이단사이비단체입니다. 특히 통일교는 우리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언론, 문화, 스포츠, 예술, 경제 각 분야에서 자리 잡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교가 메시아로 믿는 문선명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나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다는 문선명의 가정에서 부모자식 간의 법적 고소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일교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교는 아직도 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를 믿으며 담대히 문선명 집단에 대처해 나가는 한국교회의 성도들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신천지에 대한 설교 |

# 이단 신천지를 경계하라

(요이 1 : 7-11, 마 13 : 34-35)

최삼경 목사(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위원)

## I. 공동기도문

말씀과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 불모지인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려 주셔서 이렇게 성장한 한국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리 가운데 계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는 어느 때보다 이단 사이비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미혹으로 천보다 소중한 영혼들이 죽어 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전도의 문이 점점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저들은 온갖 거짓말을 다하여 성도를 미혹하고 또한 교회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대형집회, 문화행사, 성경공부, 인터넷, 가가호호 방문 등을 통하여 성도를 혼란에 빠지게 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 몰래 침투하고 들어와 소중한 영혼들을 훔쳐 가려고 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사랑하시고, 피로 교회를 사신 하나님 아버지!

이단 사이비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단에 미혹된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

여 주시옵소서. 성도들로 사이비 이단들을 구별할 수 있는 성숙함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이웃을 더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지난 선교 1세기처럼, 선교 2세기에도 내적으로 외적으로 더 성장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리 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 II. 설교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의사는 온종일 병과 씨름을 하고, 판검사는 매일 죄인과 씨름을 합니다. 그러나 의사가 병과 싸우는 것은 건강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고, 판검사가 죄에 대하여 날카롭게 지적함은 이 땅에서 범죄를 막고 선한 사람들을 보호하자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단이나 사이비에 대하여 말하고 비판하는 것은 비록 틀린 것과 잘못된 것들에 대하여 지적하고 비판하지만, 이는 교회와 진리를 더 사랑하자는 뜻이고, 틀린 것을 통하여 바른 것을 확증하자는 뜻입니다. 어차피 정답이 없으면 오답도 없는 것이란 점에서 오답을 말하는 것은 정답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성경에 그리고 대부분의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단에 대하여 경계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에는 공기관으로부터 이단 사이비로 규정된 집단이나 개인은 약 70여 종이 됩니다. 그 하나하나에 대하여 “왜 이단이야?” 그리고 그 항목 하나하나에 대하여 “이런 주장은 무엇이 잘못이고, 왜 이단이라고 해야 되느냐?”는 질문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특히 어떤 이단에게 피해를 경험한 분들은 그 이단에 대하여 더 깊이 알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가장 미혹성이 큰 이단을 들라면 ‘기쁜소식선교회’, 즉 박옥수 구원파와 ‘하나님의 교회’, 일명 ‘안상홍 증인회’ (교주: 장길자)와 그리고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는 우리는 귀신파의 원조

‘성락 침례교회, 베뢰아 아카데미’ (교주: 김기동)와 ‘통일교’ (문선명)와 ‘JMS’ (정명석), ‘큰믿음교회’ (변승우) 등을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신비주의 계열의 직통계시파 이단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중에도 한국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의 미혹성과 대처방법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하겠습니다.

### 1. 이단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서론적으로 이단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단 문제를 가정 문제로 보는 가정 사역자도 많고, 심리적인 문제로 보는 학자도 있으며, 또는 인권 문제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자들의 대부분은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어렸을 때 충격(shock)적인 일을 경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가정이 파산을 당하였다거나, 아버지가 늘 술을 먹고 폭력을 휘둘렀다거나, 어머니가 춤바람이 나서 자녀들을 돌보지 않았거나, 아니면 근친간간을 당하였다거나, 또는 자식에 대한 너무나 큰 기대감을 가진 부모의 지나친 간섭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단 문제는 가정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원인 세 가지 원인 중에 교회 편이 원인은 정통교회의 교리적 윤리적 약점이며, 사상적 원인은 신비주의와 자유주의입니다. 그런데 이단에 빠지는 일반적인 원인은 바로 위기입니다. 사랑의 위기, 경제적 위기, 죽음의 위기, 가정의 위기 등으로부터 이단이 생깁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불치병에 걸리면 이단에 많이 빠지고, 전쟁이 일어날 때 집단적으로 이단에 많이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최대의 위기입니다. 전쟁은 모든 가치의 혼돈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1992년 10월 28일에 우리가 휴거한다고 하여 10만 명이

상을 미혹시키고 전도의 문을 좁게 만들었던 '다미선교회'의 사건도 걸프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들은 1914년에 예수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그들의 다니엘 성경 해석이 다 잘못된 것이지만, 이 또한 1914년의 제1차 세계대전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단 문제는 문화적 측면이 있으나 문화적 문제가 아니고, 심리적 측면이 있으나 심리적 문제가 아니며, 가정의 문제가 있으나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단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단에 빠진 자들의 심리적 분석을 시도한 학자들도 있지만, 이들의 심리 치료로 이단에 빠진 자를 구할 수는 없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이단에 빠진 원인이 어디에 있든 성경으로만 저들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단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증거입니다.

## 2. 이단에 빠지는 것은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강도는 우리의 육체를 죽이지만 영혼을 죽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단은 영혼과 육체를 다 죽입니다. 도적은 물질만 도적질하지만 이단은 물질도, 가정도, 시간은 물론이거니와 영혼까지 다 도적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단에 빠진 자는 인권을 유린당한 어떤 사람보다, 강간을 당한 어떤 사람보다, 전쟁에서 죽은 어떤 사람보다 더 불쌍합니다.

6·25전쟁에 죽은 사람보다 이단에 빠진 사람이 더 불쌍합니다. 그것은 전쟁에 죽은 사람 중에 예수를 믿고 죽은 영혼은 구원받지만 이단에 빠진 자의 영혼은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마 18 : 6)는 참된 의미입니다. 이제 본론적으로 신천지의 미혹성의 방법과 대처 방안을 생각하겠습니다.

**첫째, 신천지는 교회 밖에서 성경공부를 하도록 미혹합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그러하듯 이단들은 성도들을 미혹하여 교회를 떠나게

하고, 자신들의 교리를 믿게 하여 자기 단체로 옮기고, 나아가 정통교회 교인들을 효과적으로 더 미혹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신천지가 가장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미혹하려고 하는 성도는 우선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이나 목회자의 설교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불평을 하는 사람, 특히 교역자에 대하여 불평을 하는 사람을 포섭 제일 대상으로 합니다.

우선 신천지는 위장 자원봉사단체를 설립하여 성도를 미혹합니다. 즉 사단법인 '만남', '좋은 날(하늘무용단)', '얼 지킴이', '아름다운사람들의 모임', '봉다리', '온고을 크린' 등이 있고, 각종 위장 행사로는 헌혈, 태극기 손도장 찍기, 불우이웃돕기, 북한 어린이 돕기, 김장 담가 주기, 쌀 모으기, 폐옷 수거, 우유팩 수거, 각종 설문조사나 캠페인 등이 있습니다. 또한 위장 교회와 기도원을 세워 성도를 미혹합니다. 신천지로 넘어간 기존의 목회자들과 신천지 강사들을 담임으로 세워 '대한예수교장로회 복원교회', '사랑교회', '생명샘교회' 등과 같은 이름으로 위장 교회를 세우고, 기도원을 설립하여 신유집회나 성경 세미나 등을 열고, 심지어 기성 교회나 기도원을 빌려서 말씀집회, 신유은사집회, 찬양집회 등을 합니다.

이어서 위장 문화단체나 평생교육원, 위장 카페 등을 운영하여 성도를 미혹합니다. '생활문화연구원', '사랑이 머무는 곳에' 등의 위장 단체를 설립하고, '지식마당', '건강마당', '솜씨마당', '아침세미나'와 같은 각종 문화강좌와 미술심리치료, 도형분석, 치료 상담 강좌 등과 위장 카페를 설립하여 성도를 미혹합니다.

그리고 대학가에 위장 동아리나 특히 인터넷상의 위장 카페를 통하여 대학생들을 미혹하는 데 총력하고 있습니다. 헌혈동아리 'RCY', 학술, 취업, 자기 개발 동아리 '도움닫기', 기독교 동아리 '가스펠'(충남대), 맛집 동아리 '맛 동산', 팝 동아리, 봉사활동 동호회 '만남'(전주대), 봉사 활동 동아리 'ES', 영어 학술 동아리 '글로벌 챌린저'(전북대) 등이 있습니다.

또한 각종 설문지를 이용하여 성도를 미혹합니다. 가가호호 방문이나 대학가, 공원, 길거리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간관리 세미나, 도형 그리기, 기독교 영화제, 도형상담, 미술치료, 성격 유형검사, 애니어그램, 헌혈, 손금 보기 등의 설문을 이용합니다.

나아가 위장 언론들을 통하여 성도를 미혹합니다. 신천지에서 은밀하게 발행하던 「기독교 초교과 신문」의 위장성이 밝혀지자 이를 폐간하고 제호만 바꿔 「천지일보」로 재창간하였으며, 또한 인터넷 언론 ‘울댓뉴스’를 ‘뉴스천지’로 이름만 바꿔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것들은 다 수단적 의미를 가집니다. 이들의 최종 목표는 바로 교회 밖에서 이만희를 보혜사로 믿게 하는 성경공부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성경공부에 참여만 하지 않는다면 신천지에 빠지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서 성경공부를 하도록 유도하는 자들을 무조건 신천지로 의심해야 합니다.

누가 외부에서 성경공부를 하자고 제안하면 그 성경공부가 무엇이며, 누가 하는 것인지 자세히 물어서 먼저 교회 교역자에게 꼭 상의하여야 합니다. 교역자의 허락 없이는 어떤 성경공부도 가면 안 됩니다. 비록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공부 중에도 건전한 공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교회에서 하는 성경공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꼭 해야 하다면 교역자의 허락을 받은 후에 하도록 체질화해야 합니다.

### 둘째, 신천지는 성경을 비유로 해석합니다.

이것을 ‘비유론’, ‘비사론’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비유론은 신천지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들의 모든 미혹성은 성경을 비유로 해석하는 것에서 비롯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론의 산 하나만 넘기면 나머지는 쉽게 됩니다. 비유론에 현혹되지 않으면 신천지에 빠지지 않습니다.

신천지에는 정통교회 교인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68개 질문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두 비유적으로 해석하여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한 질

문서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질문서가 68가지가 아니라 680가지가 된다고 하여도 비유론을 구별하여 빠지지 않는다면 미혹되지 않습니다. 68개 모두 비유에 근거하여 성도를 미혹하려고 만들어진 질문서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유론’ 또는 ‘비사론’이란 말을 사용하면서 미혹한다면 신천지를 쉽게 구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68가지 질문서를 보면 ‘비유론’이란 말도 ‘비유’라는 말도 없습니다. 단지 그들이 제시하는 문제에 대한 답들은 하나도 예외가 없이 비유에 의하여 만들어진 교리들이란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에 의하여 잘못 해석된 저들의 교리를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저들의 미혹성이 큰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비유란 성경에서 비유로 가르친 것만 비유입니다. 즉, 이들의 핵심 성구인 마태복음 13 : 34~35은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마 13 : 34 - 35)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구는 저들의 핵심 성구 중에 핵심 성구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라고 할 때 여기 “이 모든 것”은 “모든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모든 성경이 다 비유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53절에서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라고 한 말씀 중에 “비유를 마치신 후”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위의 34절 말씀으로 성경 계시가 모두 끝났다는 말이 됩니다. 아닙니다. 여기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만 비유입니다.

그리고 비유에서 교리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비유론 학자들은 비유에서 교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을 비유로 해석하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들은 대부분 성경을 풍유적으로 해석하는데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성경은 항상 유기적으로, 문학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신천지의 비유적 해석 중에 한 가지를 예로 들겠습니다. 이들의 68가지 질문 중에 7번째 질문이 “예수님이 재림 때 타고 오시는 구름은 무엇일까요?”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재림 때에 예수님이 타고 오시는 구름은 육적 구름이 아니다. ‘성령의 조직체’를 구름으로 비유한다”(대하 5 : 13~14에서는 구름을 여호와와 영광이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통일교와 통일교 계열의 이단들은 구름을 사람으로 해석하여 자신들의 교주의 탄생을 합리화하는 데 사용하여 신천지는 구름을 ‘영’ 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구름’이란 말이 146회(개역개정판) 나오는데 ‘구름’을 영으로 해석하면 모순되는 점만 살펴봐도 구름을 ‘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 셋째, 신천지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가르칩니다.

신천지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교회에 위장하여 등록을 하고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교회 안에서 세를 불러 갑니다. 인천의 한 교회에는 추수꾼이 전도왕이 되어 있었고, 무려 150명의 추수꾼들을 그 교회에 전도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추수꾼이 300~400여 명, 또는 500~600여 명씩 우글거리는 대형 교회도 많다는 점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거짓말을 합리화합니다. 소위 ‘모략 작전’이란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위장하여 교인으로 교회에 등록도 하고, 거짓으로 전도도 하고 회개도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천지는 미리 탐색조가 침투하여 교인들의 성향을 다 파악하고 후에 침입조에게 정보를 주고 빠지기도 합니다.

이 꿈 얘기는 여러 곳에서 널리 사용된 소위 ‘모략’ 작전에 이용된 거짓 꿈 얘기라고 합니다. 미리 들은 정보를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권사님에게 접근을 합니다.

“혹시 권사님이 아니세요?”

“아니 어떻게 저를 아세요?”

“맞군요, 어제 밤에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수천 명이 홍수가 나서 물에

쓸려 죽어 가는데 제가 그들을 구원하려고 밤새 노력을 했는데 그중에 겨우 딱 한 사람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권사님을 닮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권사님의 아들이 감옥에 가 있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나요?”

“그것을 어떻게 하세요?”

“어제 밤에 꿈을 꾸었다고 했잖아요? 꿈에서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거의 다 이들 전략에 빠진다고 합니다. 유사한 방법으로 작은 교회를 신천지 추수꾼들이 점검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교역자를 넣고 합법적으로 정통교회를 신천지에서 옮기게 합니다. 이것을 일컬어 ‘산 옮기기 전략’이라고 합니다. 소위 산 옮기기 전략에 의하여 잃어버린 교회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거짓말은 마귀의 속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요 8 : 44). 분명히 거짓말은 마귀의 속성으로 신천지는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을 채우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 하는데, 그것은 14만 4천 명이 차면 신인합일이 되어 육체가 죽지 않고 영생불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위 조건부 시한부종말론입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은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장차 시온산에 서게 될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에게는 거짓말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계 14 : 5)고 하여 성도에게는 거짓말이 없어야 함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만 보아도 신천지가 성경과 다른 집단이며, 사탄의 속성을 가진 단체임을 알게 합니다.

### 3. 결론입니다

**첫째, 성경은 이단을 경계하고 이단과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이단을 미리 경계하라고 합니다. 미리 이단에 대하여 경계심만 가져도 이단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로 알려진 사도 요한은 이단과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은 목욕을 하다가 도케티즘(가현설주의자)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목욕탕이 무너질까 봐서 벌거벗고 뛰어나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제자 이레니우스처럼 이단 문제에 대하여 강한 변증을 한 속사도는 없습니다.

**둘째, 가능하면 이단 문제는 예방을 해야 합니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예방은 10의 노력에 1,000의 효과가 나타나지만, 치료는 1,000의 노력에 10의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마치 장티푸스는 음식만 끓여서 먹으면 걸리지 않지만 한 번 걸리면 치료가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단에 대하여 공동의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목회자도 사명을 가져야 하지만 그러나 목회자만 가져서도 안 됩니다. 신학자도 사명을 가져야 하고, 평신도도 가져야 하고, 언론인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신학교 교수들은 이단에 대하여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사 교수도 가져야 하고, 조직신학 교수도 가져야 하고, 실천신학 교수도 가져야 합니다. 대형 교회도 가져야 하고, 작은 교회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성경을 보십시오. 이단에 대하여 경계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를 보십시오. 속사도들을 보면 다 이단과 논쟁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신학이 형성되었습니다. 정통신학이 먼저 생긴 것이 아니라 이단 사상이 먼저 생겼습니다. 정통신학은 이단 사상에 대한 변증의 필요로 생겼습니다. 그것은 병이 생겨서 약을 만들고 치료법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지도자들이 이단에 대한 정보를 빨리 접하여 알려 주어야 합**

**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리더가 있습니다. 초식동물의 경우 그 리더는 항상 주변을 살핍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이 오면 신호를 보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리더는 이단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이단들은 수시로 이름을 바꾸고 그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것들을 알아서 교인들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리더의 책임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 “이상한 곳에서 파는 이상한 음식을 먹지 말아라. 거기에는 대장균이 많고 또 몸에 해로운 것들이 많이 들었다.”라고 잔소리를 하는 것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어른은 아이들이 먹어서는 안 될 유해식품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곳은 이단이다.”는 공지만 정확하게 하여도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넷째, 특히 이단을 옹호하는 이단 옹호 언론들을 이단과 같이 경계해야 합니다.**

이단 옹호 언론에는 이단 측에서 정통교회 신문처럼 위장하여 만든 것과 정통교회에 속한 사람이 돈벌이를 위하여 이단을 옹호하려고 만든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단 옹호 언론들이 많습니다. 즉, 기독교초교파신문(올댓뉴스, 천지일보), 교회연합신문(강춘오), 크리스찬신문, 크리스천투데이(기독일보, 베리타스, 아폴로기아 등) 등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실이 아닌 거짓을 글로 써도 그것을 믿고 최소한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 옹호 언론들이 문제입니다. 어떤 점에서 이단 옹호 언론들은 이단보다 더 나쁜 사람들입니다.

**다섯째, 이단을 연구할 전문 기구와 이단에 빠진 자를 구할 상담 기구가 필요합니다.**

전에는 이단에 빠진 자는 구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중 교육을 시키면 70~80%가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아무

리 많은 상담소가 있어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지금 여러 곳에서 이 일들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100만 명의 영혼을 구하려면 더 많아야 합니다. 이단 사이비의 문제는 이단연구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단 사이비 문제는 한국교회 문제입니다. 이단 사이비의 문제는 목사님들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진리의 문제입니다. 이단 사이비의 문제는 이단에 빠진 가족들을 두신 분들이나 관심을 가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가져야 할 영적 문제입니다.

이단 문제에 있어 최고의 문제는 무관심입니다. 그러므로 교권 아래 있지 않고, 돈 때문에 이단을 옹호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지나친 흑백논리에 의하여 이단을 연구하지도 않는, 복음적인 그러나 정직한 언론들이 많이 일어나야 이단을 막아 낼 수 있습니다.

본인의 허락을 받은 감동스런 실화가 있습니다. 충남 제일교회 박재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박 목사님의 딸이 미국에 연수를 가려고 하다가 한 전문업체를 통하여 홈스테이할 집을 소개받고 일을 진행하여 이미 1,200만 원의 돈을 지불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알고 보니 가려고 하는 집이 물몬교 목사의 집이었습니다. 박 목사님의 딸은 너무나 순진하여 물몬교 교인들이 윤리적인 사람으로 보이기 위하여 온갖 친절을 다할 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00만 원이란 돈을 다 포기하고 미국에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자세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요한 사도의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요이 1: 10-11).



| 정명석 집단에 대한 설교 |

#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막 13 : 5-6 ; 21-23)

구춘서 목사(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상담소장)

## I. 교독문

인도 :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회중 :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라

인도 :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회중 :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인도 :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의 말을 듣느니라

회중 :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여야 하리라

인도 :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회중 :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

리라

인도 :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회중 :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같이 :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 II. 공동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로 값 주고 사신 한국교회가 사악한 이단들의 교묘한 미혹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 교회를 등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안티 그리스도교 세력이 인터넷과 매스미디어를 통해 교회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어둔 세상의 등대가 되어 진리의 빛을 밝혀 이 세상을 이끌어야 할 교회가 본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총회가 이단경계주일을 지키는 오늘,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이단들의 교묘한 미혹으로부터 진리를 수호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바른 신앙생활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적그리스도 세력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신령한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망이요 진리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 III. 설교

### 1. 서론 : 이단경계주일의 중요성

어떤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늦어 차를 막 몰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교통 순찰차가 뒤에서 따라와 옆으로 차를 대라고 말합니다. “바로 저기 앞 교회에 가는데 예배 시간이 늦어 그랬는데 한 번만 봐 주세요.” 그러나 묵묵부답 티켓을 끊고 있는 교통 경찰관을 쳐다보면서 장로님이 말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공홀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공홀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 경찰은 티켓을 장로님에게 주면서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다 성경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뜻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성경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이럴 때 성경말씀은 누구 편을 들까요? 이렇게 성경은 매우 구체적인 상황에 침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바르게 성경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위의 두 사람의 경우 다 성경을 바르게 인용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도록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성경을 인용하고 해석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그 기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적 전승을 이어받는 교회의 전통이 중요하고, 건전한 사회적 상식이나 통념도 중요하며, 또한 우리의 경험이나 이성적인 비판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말씀에 근거하여 노예제도를 주장할 수도 있고, 또 노예 해방 폐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가 진보되어 오면서 노예제도는 폐지되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은 우리 총회가 결의한 이단사이비경계주일입니다. 할 일 많은 우리 총회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오늘 이단사이비들이 한국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이 단순히 한국교회를 어렵게 하는 차원을 넘어 이제는 한국교회의 근본을 허물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실상 이단에 속한 우리 국민의 숫자가 10%가 넘는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 이단

에 속한 사람들의 활동력이나 해외선교의 힘은 기성교회의 3배 내지 4배가 된다고 합니다. 이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반사회적이고 비도덕적인 행동을 함으로 한국교회 전체의 위상을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기성교회와 이단들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가뜩이나 난무하는 안티 그리스도교 세력들에게 좋은 비판거리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단 사이비들을 경계하기 위해 이단사이비경계주일을 지키는 것은 사실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단들이 발생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대개 이단들은 또 다른 이단들에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 기성교회를 비판하며 또 자신을 신격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선명 통일교 집단, 박태선 천부교 집단,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등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이단들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세력을 일으켜 이단들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극단적인 신비주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 기성교회를 비판하고 입신, 천국 방문 등의 미혹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포교하지 않고 주로 기성교회 교인들을 미혹하여 자신들의 세력을 불려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이단 교주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나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현 사회에 대해 그리고 기성교회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자라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성공을 위해 자신의 추종자들을 이용하고 기성교회나 기독교 세력을 공격하는 데 앞장섭니다. 그리하여 자신들의 추종자들을 결속시키고 반사회적이고 비도덕적인 행동도 서슴치 않게 하도록 세뇌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총회는 금년 한 해를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로 정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자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이단들이 더욱 젊은 세대들에게 호소하며 다가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천지 집단,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그리고 기쁜 소식회, 정명석 집단들은 젊은이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미혹되어 넘어가는 젊은이들이 기성교회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교회의 청년회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2. 정명석(JMS : 기독교복음선교회) 이단 집단

오늘 우리 나라에서 활동하는 이단사이비 집단 가운데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집단을 들라면, 주로 기업활동과 문화활동을 통해 활약하는 통일교, 사회봉사와 해외 선교를 가장한 하나님의 교회, 최근 대대적인 텔레비전 광고와 체육관 집회, 그리고 젊은이들의 영어옹변대회, 국제대회를 개최하는 등 세력 확장을 노리는 박옥수 씨의 구원파 집단, 그리고 특히 대규모 체육대회와 치어리더들의 열정적인 응원으로 유명한 정명석 집단 등이 있습니다. 다른 이단보다 오늘은 정명석 교주와 그가 세운 ‘기독교복음선교회’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주 정명석은 한때 통일교에서 활약하다가 떨어져 나와 자신만의 세력을 넓혀 나가는 집단입니다. 따라서 통일교와 비슷한 교리를 내세우고 있으면서도 우리 기독교 분파인 양 가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정명석 교주에 대해서 인터넷 네티즌들이 출처와 근거를 제시하면서 집단으로 만들어 올리는 위키백과에서 나온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정확한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된 객관적인 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정명석(鄭明析, 1945년 2월 17일 ~ )은 대한민국의 종교인이며 성폭력 범죄자로 현재 복역 중이다. 기독교계 신흥종교인 기독교복음선교회의 설립자이며 현 지도자이다. …… 그는 1999년에 한국을 떠나 2001년 6월 30일 이후로 강간 혐의로 인해 기소중지 이후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그는 2002년에 인터폴에 의해 지명수배를 받았다. 그는 2003년에 홍콩에서 불법 거주로 인해 체포되었으나 보석으로 풀려나서 달아났다. 그는 또한 사기, 성적 학대, 횡령으로 인해 지명수배를 받았다. 그 뒤 해외 도피생활을 계속하다가 2007년 5월 11일, 중국 공안에게 부녀자 성폭

행 혐의로 체포되어 2008년에 대한민국에 송환되었다. 정명석은 여신도에 대한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2008년 8월 12일 1심에서 징역 6년을, 2009년 2월 10일 2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았다. 2009년 4월 23일 대법원 선고에 의해 징역 10년형이 확정되었다.

정명석은 1945년 충남 금산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여러 해 동안 그의 고향 주변의 산속에서 기도로 고독한 삶을 보냈다. 21세가 되어 그는 한국 군대에 입대했으며 베트남전쟁에 참전하였다. 30세가 되어 그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 고향에서 정명석은 문선명의 통일교에 입교하여 그의 교리를 배웠다. 그곳에서 승공연합에서 반공 강사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통일교에서는 강사가 된 사실, 그 자체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1980년 3월에 통일교에서 나와 애천교회를 설립하고, 1983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으나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기독교복음선교회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니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그가 설립한 기독교복음선교회(CGMC)는 이전에 애천교회, 예수교대한감리회 진리측, 세계 청년대학생 MS 연맹, 국제크리스찬연합 등의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교리는 통일교와 유사하다.”

한편 정명석의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999년 SBS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정명석의 성추문에 대해 보도하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여러 성추행 사건으로 기소중지되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대법원이 성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국 경찰은 2002년 정명석에 대해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했으며, 인터폴은 2004년 1월 그를 적색수배 명단에 올렸다. 그는 중국에서 수년간 도피생활을 해 오다 2007년 5월 11일 중국 공안에게 성폭행 혐의로 체포되었다. 2008년 1월 11일에는 그에게 성추행 및 성폭행을 당한 여성신도(한국여성 1명, 일본여성 1명)에게 위자료 총 6,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한편 우리 교단은 전문교수들로 구성된 연구위원들이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단사이비대책위원들이 심의하고 의결하여 총회 임원회 결의를 거쳐 총회에 보고하면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결의과정을 통해 결정된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정명석 집단을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성경 해석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많은 오류를 지적할 수 있겠으나 대표적인 것이 “오병이어는 결코 떡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며 12광주리에 부스러기가 남았다는 것은 12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전한 말씀 외에 부스러기 같은 말씀을 갖고 있다.”는 식으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정명석 씨는 다른 이단들과 마찬가지로 기성교회를 비판하고 자신을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교는 영적인 실패자요, 신약시대는 성령이 실패하였으며, 기독교는 영적인 실패자이며, 기독교에는 희망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정명석 자신이 요시아 왕같이 하나님이 보낸 자이므로 기독교가 자기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라든가 해괴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이단 집단이 등장하여 특히 젊은 세대를 미혹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며, 이미 예수님께서 경고한 내용과 너무나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 첫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자신을 신격화하는 이단을 경계하라고 경고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마 13:5-6). 도처에서 사람들이 나타나 자신들이 그리스도라고 미혹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단들의 대표적인 형태를 보자면 이들의 교주의 신격화입니다. 자신들만 특별한 계시를 받았거나 자신만이 바르게 성경을 해석할 것이라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단에게 빠져드는 것이 이상해 보일지 몰라도 이 세상에서 절박한 사람들에게 이단 교주들이 메시아처럼 또는 그리스도처럼 보인다는 것은 대단한 매력적인 요소

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단 교주 정명석은 자신이 마치 재림 예수인 것처럼 주장합니다. 자신은 가만히 앉아서도 마음대로 영계를 돌아다니고, 자신의 출생지 금산 월명동을 공원으로 꾸며 추종자들을 방문하도록 하는가 하면 심지어 그곳에서 나오는 물을 신비의 치료효과가 있는 생명수인 것처럼 선전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정명석을 신격화하는 작업인 것입니다. 심지어 정명석이 자신의 추종자를 성적으로 강간하고 희롱한 것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정명석 추종자들은 그가 마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에게 박해를 받은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주장이 먹혀 들어가는 것은 이들 추종자들이 심리적인 역동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은 묘한 존재입니다. 착각을 하기도 하고 착시현상을 갖기도 합니다.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을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심지어 인간은 강력한 생존 본능 외에 자신을 파괴하고픈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단의 교주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해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릴리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결코 정명석과 같은 부녀자를 강간하고, 실형을 받고 감옥에 있는 그런 파렴치범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오늘 본문은 이단들의 외적인 능력이나 그들의 물질적인 성공 때문에 추종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1~23절입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통일교는 엄청난 자금 동원력을 자랑합니다. 신천지 집단에는 오래된 자

료였지만 현금 250억이 은행 계좌에 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박옥수 구원파 집단은 대대적인 체육관 전도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석도 대학생과 젊은 이들을 동원한 대형집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또 월드컵이 있었던 2002년에는 대전에서 세계 월드컵을 흥내 낸 대형 체육행사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양의 털을 쓴 이리들입니다. 자료에 보면 정명석은 자기를 추종하는 여학생들을 수영복 차림으로 사진을 찍어 오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여성을 골라 성추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공공연히 밝힌 여자에 대한 조건을 보면 과연 그가 여자를 보는 시선을 알 수 있습니다.

1. 음식도 맛있게 잘합니다.
2. 여자들이 남편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잘 써 주고 웃으며 대합니다.
3. 가곡 몇 곡씩은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이 노래하는 것을 감상하고 평가할 줄 알아야 합니다.
4. 의상도 멋있게 입어야 합니다. 시대에 따라 세월에 따라 색깔도 멋있게 입고 다니고 인생을 멋지게 살아야 합니다. 인간의 잠재능력을 하나님께 받아서 살게 되면 너무너무 멋있게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입니다. 머리 손질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전부다 그렇게 멋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5. 모든 매너, 말에 맛이 있어야 합니다. 흐리멍덩하지 않고 확실하고 뜻이 있고 가치가 있고 뼈대 있고, 콘크리트 비비는 건물의 철근같이 이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흐리멍덩하면 안 됩니다.
6. 깔끔해야 합니다.
7. 여자는 애교가 차고 넘쳐야 합니다. 묵직하게 다닌다고 폼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8. 썩어 될 살이 찌는 것도 복입니다. 살 빠진 사람이 살찌는데 얼마나 애를 먹는지 압니까? 보약을 먹어도 안 찹니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많이 살찌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갖춰져 있어야 된

다는 것입니다.

9. 건강해야 합니다. “매일 머리 아프다, 배가 아프다, 뭐가 아프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배 이상 아픕니다. 왜 그런고 하니 혼자 있어도 그런데 둘이 있으면 더 하지요 뭐. 그래서 여자들은 건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혼하기 전에 100% 보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녀들도 건강하고 멋진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10. 음식도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매일 짹짹, 짹짹, 그러면 결국 살 빠져서 뼈만 앙상하게 됩니다.
11.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여러 가지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힘 안 들이고 허리를 빙글빙글 돌릴 줄 아는 여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고 빼면 안 됩니다.
12. 열심을 내야 합니다. 흐리멍덩하면 안 됩니다. 자포자기하고 나아가서는 주저앉고, 난 못한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이 좋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명석이 대단히 농촌에서 자라나 전통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밥도 잘해야 한다, 남편에게 내조를 잘 해야 한다, 또 음식도 잘 먹어야 한다는 것을 보면 농사짓는 시골의 삶을 그가 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자들은 멋도 내야 하고, 노래도 잘해야 하고, 춤도 잘 추어야 하고, 옷도 맵시 있게 입고 또 건강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보면 또 현대적인 것을 취하려고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그가 한때 속했던 통일교의 피가름 원리에서 영향을 받았는지 자신이 상대할 여자 추종자들을 뽑을 때 적용한 것을 보면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이런 교주에게 왜 빠져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젊은이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정명석을 마치 예수님이 곤고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금년 식목일에도 예외 없이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추종자들을 불러 모아 자신의 고향에 개발한 월명동 공원에 나무심기 행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공원을 만들어 놓아도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그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 해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명석은 우리가 멀리해야 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범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가 종교적인 지도자 행세를 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단들에 대해 어른들에게는 많은 교육을 시키지만 상대적으로 젊은이들에게는 이단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이들의 화려한 행사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특별히 정명석 집단은 운동대회와 늘씬한 치어리더들이 아슬아슬하게 짧은 치마를 입고 발랄한 율동으로 젊은이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종교 단체가 이런 자극적인 모습의 행사를 진행하는 것도 다 유혹하려는 음흉한 의도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순진한 젊은이들은 이런 행사에 열광하고 나아갑니다.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열광적인 스포츠 행사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거대하고 화려하게 꾸며 놓은 그들의 건물이나 동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아름답고 수준 높게 만든 그들의 홈페이지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겉으로 보아기는 화려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양의 털을 쓴 이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속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셋째, 이단들에게 미혹되지 않으려면 열심히 교회생활해야 합니다.**

이단들은 교회에서 소외되거나 목회자에게 불만이 있거나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곳에 반드시 등장하여 미혹합니다. 기성교회를 비판하여 불만이 제기되도록 하거나 아니면 이미 교회 안에 불만이 있거나 상관없이 교회생활에 소홀하고 비판적이고 만족하지 못하면 이단들이 유혹의 손길을 뻗쳐 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다 일일이 살피지 못한다고 해서 이단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 교회는 성경을 못 가르치니 다른 곳에 가서 성경공부하자고 유혹합니

다. 이 교회는 열심이 없고, 방언도 없고, 헌신도 없으니 다른 곳에 가자고 합니다. 또는 이 교회는 봉사활동도 없으니 다른 곳에 가자고 합니다. 이 교회는 여자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합니다. 이 교회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니 유월절 지키는 교회로 가자고 유혹합니다. 다 거짓입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린 소년이 세발자전거를 타고 맹렬하게 집 주위를 돌고 있더랍니다. 계속 집 주위를 돌고 있는 그 소년을 발견한 경찰이 그 소년을 세우고 “애야, 왜 집 주위를 그렇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숨을 헐떡이며 그 소년이 말했습니다. “집에서 멀리 도망가려고요.” “그래? 그런데 왜 멀리 가지 않고 집 주위만 돌고 있니?” 그 소년이 대답합니다. “엄마가 자전거 타고 저 길을 건너지 말라고 해서요.” 이 소년은 웬지 집에서 멀리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를 사랑하는 그리고 자기도 사랑하는 엄마의 말을 거역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이단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이단의 가장 무서운 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이단에게 미혹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아닌 곳에서 성경공부하자는 교인이 있으면 주의해야 합니다. 교역자들에게 바로 알려야 합니다. 이단에 물든 사람은 교인들이 잘 알 수 있습니다. 교역자들에게는 철저하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때문에 알아내기 어렵습니다. 미혹하기 위해 접촉하는 교인들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학교나 직장에서 유혹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총회가 지키기로 한 이단경계주일을 맞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바른 신앙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배포한 CD 녹취록의 이단성>

2010년 12월경 일제히 한국교회에 신천지 추종자들이 방문하여 이만희 교주의 동영상에 담긴 CD를 배포하였다. 이 CD에 담긴 내용은 자기 변명을 담고 있으나 여전히 이단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CD에 담긴 이만희 교주의 주장을 반박한다.

### 1. 직통계시를 받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만희는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 안수하고 말씀을 주셨으므로 자기가 하는 말을 ‘계시의 말씀’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오늘날 계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도 아는 사람은 없으므로’ ‘구원도 없다’(3쪽)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계시 받아 기록한 신구약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이며, 구원에 관한 모든 부분의 모든 진리가 온전하게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만희는 신약과 구약은 무효라고 한다(「영원한 복음 새 노래 계시록 완전 해설」, p. 27). 따라서 성경말씀을 배제한 채 자신이 받은 특별 계시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약속의 장소도 알 수 없으며, 따라서 구원이 없다는 이만희의 주장은 성경론적, 계시론적 이단이다.

### 2. 마귀와 결혼한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만희는 기성교회를 계시록 13장 바벨론이라고 한다. 기성교회의 목자들도 음녀와 더불어 행음하였고, 그 땅에 거하는 자들도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하였는데 이들이 바로 기성교회라는 것이다. 따라서 바벨론처럼 마귀와 결혼한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다는 의미에서 기독교의 종말을 주장한다(2쪽).

그러나 사도신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기성교회는 이 땅에 흠어져 있는 모든 교회가 바로 ‘거룩한 공교회’(the holy catholic church)라고 고백한다. 전 세계에 21억 이상의 기독교인을 포함하는 기성교회를 마귀와 결혼한 바벨론 교회라고 배타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이 땅에 흠어져 있는 무수한 ‘거룩한 공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부정하는 교회론적 이단이다.

### 3. 말세의 알곡이 추수되어 가야 할 곳은 신천지라고 주장한다.

이만희는 말세에 알곡 신자들이 추수되어 가야 할 곳은 ‘하나님 보좌가 있는 새 노

래가 나오는, 열두 지파가 있는, 처음 익은 열매들이 모인 그 한국'(4쪽), 신천지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신천지의 추수군 침투전략에 따르면 지금은 추수 때이고, 기성교회는 추수밭이고 구원받은 자는 알곡인데, 이 알곡이 추수밭에 그대로 있으면 구원이 없고 곡간, 즉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으로 옮겨 가야 구원을 얻고 영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은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요 3:16)고 가르친다. 곡간에 들어가야 구원이 있다거나 신천지만이 곡간이라는 주장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오류이다.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고 곡간, 즉 신천지로 옮겨 간 자들만이 구원이 있다는 주장은 기성교회의 교인들을 빼내 가기 위한 속임수이며, 이러한 배타적이고 독선적 교회론은 이단사이비 집단의 공통적인 주장이다.

#### 4. 14만 4천 명의 12지파의 창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장한다.

이만희는 진리가 없는 밤에 와서 처음 익은 열매를 추수해서 새로운 나라 열두 지파를 창조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며,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영, 천국이 여기에 임해서 함께 살게 된다.”(5쪽)라고 한다. 이만희는 1984년 3월 14일 자신을 따르는 세력을 규합해 과천에서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을 설립했는데 이 날부터 육계의 새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워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시작하였으며, 12지파 14만 4천 명이 다 차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만희가 세운 12지파는 ‘요한 지파=과천, 베드로 지파=광주, 야고보 지파=부산’ 등으로 실제로는 신천지 12교구의 별칭에 지나지 않으며 이 지역들도 수시로 바뀌고 있다. 이처럼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종말론적 구원이 임한다는 시한부종말론 역시 전형적인 이단의 가르침에 해당한다.

#### 5. 계시를 받아 전하는 사람은 이만희뿐이라고 한다.

이만희는 ‘계시의 말씀을 받아 가지고 전하는 사람도 계시록 10장에 오직 한 사람밖에 없으며’,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믿지 아니한다면 성경을 믿거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닐 것’(4쪽)이라고 주장한다. 보혜사는 영과 육을 모두 말하는 것이며, 영이신 하나님이 육으로 오신 보혜사가 예수이듯이, 진리의 성령이신 다른 보혜사가 택한 목자로서 육으로 오신 분이 이만희이다. 따라서 예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한 것처럼 택한 목자 이만희를 보고 믿는 것이 곧 그를 보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성령을 믿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심지어 이만희를 ‘만유의 대주제’요 ‘영광의 본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이만희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주장하는 것이므로 교주를 신격화시키는 가장 고약한 이단의 전형이다.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이만희가 대주제이자 하나님일 수 없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만희가 재림 예수일 수가 없다.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은 영이므로 육으로 올 수 없으며, 이만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보혜사라는 주장은 성경론적 이단이다.

#### 6. 따라서 이만희(신천지)는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되었다.

이만희는 6,000년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처음으로 밝히는 보혜사요, 재림주요, 새 말씀의 아버지이며,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에 가야만 구원과 영생이 있다고 주장하였기에 1995년에 예장통합총회에서 계시론, 기록론, 신론, 구원론, 종말론에 있어서 이단으로, 예장합동총회는 ‘신학적 비판가치가 없는 집단’으로 규정하였다. 기성(1994), 합신(1999), 고신(2005)에서도 이단으로 규정한 바 있다.

최근에는 ‘추수꾼’ 교리와 ‘산 옮기기 전략’과 ‘가나안 정복 7단계’와 ‘교회 직접 방문’ 등으로 기성교회에 침투하여 교인들을 빼내 가는 등 큰 물의를 빚고 있음으로 주의와 예방과 대처가 요청된다.

2011년 4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 <이단사이비 관련 총회 주요 결의사항>

제4회~제95회 총회(1915 - 2010)

성명(명칭)	관련 교회·단체명	총회	연도	주요내용	결의
안식교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	4	1915	안식교 교리가 옳다하거나 그 교회로 가면 치리	면직 제명
		80	1995	구원론 안식일 계시론 영혼멸절 영원지옥부재 등	이단
이용도		22	1933	신비주의	이 단 으 로 간주할 수 있는 단체로 각 노회에 주의 통첩
백남주					
한준명					
이호빈					
나운몽	용문산기도원	40	1955	장로교 신경에 맞지 않음	이단
		41	1956	강단에 세우는 것 엄금, 집회에 교인 참석금지	이단
		83	1998	변화 없음(제40, 41회 총회 결의 대로 지킬 것)	
박태선	전도관(현 천부교)	41	1956	비성경적이요 본 장로교 교리와 신조에 위반됨	이단
노광공	동방교 (기독교대한개혁신학교)	41	1956	강단에 세울 수 없고 집회참석도 금지	이단
염애경					
문선명	통일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56	1971	전통적인 신학사상과는 극단적으로 다름	사이비 종교
		60	1975	가입 금지, 관련 신문 잡지에 투고 금지	불인정 집단
		61	1976	교단화합 교회사명에 장애를 줌, 단호히 경고	엄하게 처리
		64	1979	기독교를 가장한 사이비 종교 집단임	기독교 아님
		73	1988	문선명 집단 관련제품 조사하여 불매운동 전개	불매 운동
		74	1989	통일교와 관련자 철저히 조사 색출하여 처리	조사 처벌
소천섭	구원파 (기독교복음침례회)	59	1974	본 장로회와는 신앙이 맞지 않음	제명 강단 집회금지

권신찬	구원파 (기독교복음침례회)	59	1974	본 장로회와는 신앙이 맞지 않음	제명 강단 집회금지
		68	1983	참된 복음운동에 광신적 혼미 가져올 우려 농후	사이비
		77	1992	깨달음구원 회개·죄인문제, 시한부적종말론	이단
김기동	베뢰아아카데미	72	1987	귀신론, 교계 혼란 초래	지침서 발행
		73	1988	귀신론, 신학적, 목회적 문제점 있음	참석금지
		75	1990	김기동식 축사 금지, 김기동 및 유사 집회 금지	집회금지
		77	1992	신론, 기독교론, 계시론, 창조론, 인간론, 사탄론	이단
		80	1994	교계언론의 이단사이비 재연에 대한 대책 촉구	이단임을 재확인
이선아	밤빌리아추수꾼	75	1990	영성치료를 인간이 온전하게 된다는 주장	이단
박윤식	대성교회 (현 평강제일교회)	76	1991	기독교론, 타락관, 계시관, 창조론	이단
박명호	엘리아복음선교원	76	1991	이신득의 진리거부, 인간이 신이 된다는 교리	이단 / 안식교 계열
이장림	다미선교회	76	1991	구원론, 계시론, 교회론, 종말론	이단
이초석	한국예루살렘교회	76	1991	성서론, 신론, 창조론, 인간론, 기독교론, 구원론, 귀신론	이단 / 김기동 계열
윌트니스리	지방교회 (한국복음서원)	76	1991	신론, 기독교론, 인간론, 교회론(연구보고서는 77회)	이단
		91	2006	재심청구 제출	서류 미비로 불가
		93	2008	재심청구 제출(추가자료)	총회결의유지 / 이단
이명범	레마선교회	77	1992	삼위일체, 창조론, 인간관, 성경관, 극단적신비주의	이단 / 김기동 계열
이요한	구원파 (대한예수교침례회)	77	1992	깨달음구원 회개·죄인문제	이단 / 권신찬 계열
박옥수	구원파 (대한예수교침례회)	77	1992	깨달음구원 회개·죄인문제	이단

서달석	강서중앙교회 (서울중앙침례교회)	78	1993	구원관(구원파와 같음), 종말론, 교회의식절기	이단
김계화	할렐루야기도원	78	1993	성령수술, 생수병치료, 계시론	비성경 비 기독교적
황판금	대복기도원	78	1993	기복적 무속적 형태의 방언, 영 서, 예언, 직통계시	사이비 집단
이만희	신천지교회 (무료성경신학원)	80	1995	계시론, 신론, 기독교론, 구원론, 종말론	이단
트레스디 아스		80	1995	인위적 요소, 파당 형성 이단이 활용	목회자 추천 반도록
		87	2002	긍정적, 부정적 측면이 있음	불건전단체 의 프로그램 참석금지
빈야드	빈야드교회·토론토공 향교회	81	1996	성령론, 특이현상의 비성경성, 무질서한 예배	도입금지 참여삼가
류광수	다락방전도운동	81	1996	마귀론, 기성교회 부정적 비판, 다락방식 영접	사이비성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84	1999	신론, 구원론, 인간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이단
박무수	부산제일교회	84	1999	4단계 회개	비성경적 사이비적
이유빈	예수전도협회	86	2001	영성치료를 인간이 온전하게 된 다고 주장	이단
엄명숙	명인교회	86	2001	기독교론, 타락관, 계시관, 창조론	이단
안상홍	하나님의교회 (안상홍증인회)	87	2002	교리적 탈선, 성경해석의 오류, 왜곡된 구원관	반기독교적 이단
이승오	말씀보존학회	87	2002	번역성경들을 이단이라고 주장	반기독교
정명석	국제크리스찬연합	87	2002	성경해석, 교회, 삼위일체, 부활, 그리스도의 재림	반기독교적 이단
원세호	기독교사이비이단 연구대책협의회	87	2002	창조론, 인간론, 삼위일체론	비성경적 이단
곽성률	장안교회	90	2005	모친을 재림주라 주장하고 우 상화	비성경적 이단사이비
심재웅	예수왕권세계선교회	90	2005	교회론, 구원론, 신격화, 밀교적	이단성 집회강의 참석금지

	'삼보일배' 행사	91	2006	불교의 예불 의식	참석금지
이윤호, 메 릴란히키	저서 「가계에 흐르는 저주 이렇게 끊어라」 등	91	2006	신관, 기독교론 및 구원론, 귀신신앙, 축사기도문	사이비성 농 후, 읽거나 가르치는 것 금지
장우영	열방교회 참여	91	2006	보혈 뿌림 시능 및 열방교회 참여	사이비 이 단성 농후
우희호	마음수련	92	2007	단순한 정신 수련이 아닌 초자 연적 신비주의적 성향	참여금지
하비람	하나님의 비밀을 간 직한 사람들 장길섭(하비람영성수 련원장)	93	2008	비기독교적이고 비성서적인 주장	참석 교류 후원금지
전태식	순복음진주초대교회	94	2009	교회론, 기초적 교리 미비, 수평 적 이동에 의한 급성장의 문제	참여자제 주시
알파코스, 셀 D12, G12		94	2009	초신자를 전도하는 긍정적 측면 이 있으나 기존 남선교회와 여 전도회와의 갈등유발 소지 있음	총회의 지도 에 따를 것 을 권함
변승우	큰믿음교회	94	2009	교회론, 계시론과 성령론, 구원 론, 신비주의적인 사역	비성경적 기독교이단
장재형	(장다윗)	94	2009	통일교신도(핵심인사), 재림주 의혹문제	예의주시 및 경계
김풍일	현 새빛등대중앙교회	94	2009	신격화, 보혜사 성령주장, 기독교론	지켜보아야 함
박철수	기독교영성본부	89	2004		더이상 문제삼 지않기로 함
		95	2010	본 교단에 대한 약속 불이행, 영 성훈련의 문제점	비성경적 운 동 참여금지
방춘희	예언신유집회	95	2010	신학적 무지 및 미신적 소지 있음	초청 자제
이단옹호 언론	기독교저널 (현 기독교평론신문)	80	1995	이단을 옹호하는 글과 광고 게재	이단옹호언론
	들소리신문	80	1995	이단을 옹호하는 글과 광고 게재	이단옹호언론
		89	2004		해지

이단옹호 언론	주일신문	80	1995	이단을 옹호하는 글과 광고 게재	이단옹호언론
	교회연합신문	80	1995	이단을 옹호하는 글과 광고 게재	이단옹호언론
		86	2001		해지
		94	2009	이단을 옹호하는 글과 광고 게재	구독 글기고 광고금지
	교회와이단	80	1995	이단을 옹호하는 글과 광고 게재	이단옹호언론
	기독교초교파신문 및 천지일보	94	2009	신천지 관련 신문	구독 글기고 광고금지
	크리스찬신문	90	1995	이단을 옹호하는 글과 광고 게재	이단옹호언론
		94	2009	이단을 옹호하는 글과 광고 게재	구독 글기고 광고금지
	세계복음화신문	94	2009	다락방전도운동 류광수 씨 측에 서 발행하는 신문	구독 글기고 광고금지
	크리스찬투데이	94	2009	장재형(장다윗) 관련 신문	구독 글기고 광고금지

## 이단경계주일을 위한 목회 자료집

**초판인쇄** 2011년 6월 25일

**초판발행** 2011년 6월 30일

**편 집**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이단사이비문제상담소

**주 소** 110-470 /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5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309호

**전 화** (02) 741-3004 / FAX. 6008-2982

**홈페이지** www.pck.or.kr / e-mail thepck@pck.or.kr

**발 행 인** 채형욱

**발 행 소** 한국장로교출판사

**주 소** 110-470 /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5

**전 화** (02) 741-4381 / FAX. 741-7886

**영 업 국** (031) 944-4340 / FAX. 944-2623

**홈페이지** www.pckbook.co.kr

**등 록** No.1-84(1951. 8. 3.)

※ 이 출판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할 수 없습니다.